

정하의 마창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시 후 센 터

센터 이벤트

중국인들에게 있어 중추절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아름답고 즐거운 명절이다. 올해 중추절은 마침 시후 센터의 매월 선이(禪二) 행사의 첫째 날이어서, 포모사 동수들은 친구, 친지들과 함께 센터에 모여 이날을 경축했다.

9월 21일, 포모사 각지의 입문자들과 손님들이 도착해 시후에서 열린 따뜻하고 즐거운 행사에 참여했다. 축하 행사는 먼저 바비큐로 오후 4시에 시작되었다. 모두가 기대하던 이 맛있고 영양도 풍부한 채식 바비큐는 주방 팀에 의해 정성스레 준비되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풍미가 뛰어나 참석자들로부터 진심 어린 찬사를 받았다.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바비큐를 즐기는 동안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화목하고 행복한 대기국'의 정겨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달이 슬그머니 나무 끝에 걸리자, '월광'의 부드럽고 평화로운 선율이 이날 저녁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월광 아희'는 아름다운 '상아'와 악살스런 '옥토끼'로 재미있게 분장한 사형과 사자가 사회를 맡아 시작되었다. 이 낭만적인 순간 우리는 스승님께 행복한 중추절을 기원하는 사랑이 담긴 인사장을 팩스로 보냈다. 이어서 포모사 전역에서 온 동수들이 다양하고도 멋진 공연들을 선보였으며, 즐거운 노래와 우아하고 세련된 춤, 뛰어난 악기 연주로 관중들의 우레와 같은 갈채를 받았다.

이날 밤 행사는 팩스로 온 스승님의 친필 답장을 사회자가 낭독하며 그 절정을 이루었다. "모두들 고맙워요, 나는 여러분을 그보다 더 사랑합니다!"라는 스승님의 짝막한 메시지 속에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어서 모두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고,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이날 어린 동수들의 랩과 쿵푸 춤, 생기 넘치는 6세대 동수들의 잘 다듬어진 안무, 예술성이 풍부한 중국의 기타 연주, 현대무용, 독창과 기타 연주 등 다양한 공연들이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달님이 내 마음을 노래하네' (月兒代我歌唱心) 함께 부르며, 안젠가 달빛이 밝는 시후에서 스승님과 함께 중추절을 경축할 날이 오기를 소망했다. 모두들 만월을 보고 소원을 빌며, 청명하고 초롱초롱한 별빛을 받으며 귀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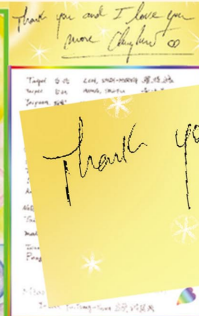
이 행사에 관한 생생한 동영상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pecial_report/2002moon/index.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special_report/2002moon/index.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com/2002moon/index.htm> (미국)

시후의 포모사 동수들의 중추절 카드에 대해 스승님께서 보내신 친필 답장.





수행의 결과는 단지 영적인 깨달음이나
개인적인 행복, 자복에만 그치지 않습니
다. 수행은 세상 또한 발전시킵니다.
~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38호

출판일자 : 2003. 3. 23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
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
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
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앞표지 안/ 뒤표지 안 센터 이벤트

포모사 시후/ 미국 뉴저지

2 사제지간의 화상회의

오스트리아/ 멕시코/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호주

7 다채로운 이벤트

남아프리카/ 브라질/ 미국/ 포모사

9 행사메모

10 스승님의 농담

진짜 속마음은?/ 사람도, 차도 골동품!/ 감자 체벌

11 스승님 말씀

우리는 천국을 따라잡고 있다

13 시

우리는 하나

14 신기한 감응

미소를 띠며 돌아가신 '아마' /
재난을 통한 일깨움/ 화신 스승님이 에어로빅을 가르쳐 주시다!

17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두려움의 진상-선종 귀신 이야기/ 인도 귀신 이야기

20/ 44 지혜어록

신구의(身口意) 정화의 중요성/ 영성으로 청소년을 인도하라

21 사제지간의 편지

내게 기쁨을 안겨 준 관음법문

22 이야기 세상

동물 역시 신의 도구

23 수행의 길목에서

항상 청정한 생각을 유지하라

25 단제명상

2002 유럽 선사(禪四) / 2002 유럽 선사 회향

27/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DVD/ CD

28 영화 이야기

E.T.를 보고 - 우리의 좋은 이웃을 사랑하자

29 수행일화

미세한 사랑의 공부

30 진실한 이야기

수십 년에 걸친 구도 여정기

33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주 대학당

38 골라 뽑은 수행문답

청소년 수행자들을 길러내는 좋은 방법/ 청소년을 황금시대로 선도하자/
청소년기의 주의산만을 극복하는 문제

40 수행과 생활

청소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보내는 편지

45 과학과 영성

과학과 영성을 잇는 가교

46 감로법어

긍정적인 품성을 키우자

47 매체보도

지나친 애완동물 예방접종

48 스승과 제자 사이

스승님을 '모시기' - 초창기 사제간의 이야기

51 관음 웹사이트

52 전세계 연락처



오스트리아 소식

축복이 넘친 아침

[비엔나] 오스트리아 동수들은 비엔나 센터에서 2002년 9월 8일에 스승님과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오스트리아 동수들에게는 이번 화상회의가 매우 뜻 깊었는데, 그것은 몇 달 전 센터를 새로 옮긴 데다 몇몇 동수들이 '시급한' 질문으로 스승님과 직접 대화하기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엔나 동수들은 이번 화상회의에 주변 센터들도 초대했다. 이로써 독일 뮌헨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동수들도 이 진귀한 기회를 접하게 되었다.

회의는 예정대로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동수들은 우선 새로운 센터가 비엔나 숲 근처 조용하고 자연미가 넘치는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했다. 스승님은 신이 이토록 수행하기에 좋은 장소를 안배해 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시며 매우 이상적인 곳 같다고 말씀하셨다. 동수들도 새로운 센터에서 열심히 수행할 것이라는 그들의 희망을 얘기하며, 사랑과 기쁨, 조화 속에서 모두가 성장하여 보다 훌륭한 지구의 시민이 될 것을 소망하였다. 스승님은 그것이야말로 모든 동수들이 매일 신구의(身口意) 방면에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스승님은 동수들의 질문에 답해 주셨다. 일부 동수들은 수년 동안 품어 왔던 의구심들을 스승님의 사랑과 현대의 선진 기술을 통해 스승님께 직접 질문해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스승님은 인내심을 갖고 질문을 다 들으시고 종종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도 하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과 보호력을 주는 내면의 불성에 의지하라고 줄곧 상기시켜 주시는 스승님의 답변은 동수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귀여운 패널로 스승님에 대한 오스트리아 동수들의 사랑을 스승님께 표현하다.

스승님은 또한 동수들에게 관음 법문이 최고의 길이고 우리는 항상 신과 함께 있으며, 센터에 올 때에는 수행의 순수한 목적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사교나 사업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고 일깨워 주셨다. 또 무엇보다도 수행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힘을 키우기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닌 완전한 깨달음, 책임감, 이해, 감사, 존경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는 매우 평화스럽고 훌륭했다. 이윽고 스승님과 작별할 시간이 되자 스승님께서서는 다른 센터와 화상회의를 할 때 다시 보자는 말씀으로 동수들을 위로해 주셨다.

멕시코 소식

오랜 바람이 이루어지다

[테스코코] 지난 수년 동안 멕시코 동수들은 스승님을 직접 뵈 수 있는 기회를 갈망해 왔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대부분의 동수들이 국제선에 참석할

수 없어서 내면의 의문점들을 직접 여쭙 보지 못했다. 때문에 2002년 9월 8일 스승님께서 멕시코 동수들과 화상회의를 가지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동수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화상회의 전날 밤은 유난히 길

게 느껴졌지만 마침내 특별한 하루가 밝아 왔다! 멕시코 각지의 동수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화상회의 장소에 모였다. 참석한 동수들은 모두 사랑하는 스승님과 함께하는 이 의미 있는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었다.

동수들은 먼저 단체명상을 하며 즐겁고 평화스런 마음으로 스승님과의 만남을 기다렸다. 스승님의 음성이 화상회의 저편에서 들려 오고 비디오 스크린을 통해 스승님의 모습이 보이자 동수들은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박수를 멈출 수 없었다. 기쁨에 넘친 이곳의 분위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동수들이 제기한 질문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간직해 왔던 것들이었기에 동수들은 스승님께 직접 질문해

지혜로운 답변을 들을 기회를 가진 것에 매우 기뻐하였다. 멕시코 동수들은 스승님과 전세계 동수들에게 시와 노래 몇 곡을 선사하였고, 현장은 시종일관 기쁨으로 가득했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만남의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이 만남은 우리들 가슴속 깊이 아로새겨질 것이다. 이 세상에 스승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첨단 기술을 통해 전파된 스승님의 범우주적인 메시지

[산호세] 지난 몇 주 동안 인터넷을 통한 스승님과 특정 센터와의 실시간 화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전세계 센터에서도 동시에 이 화상회의를 볼 수 있어 마치 매주 인터넷을 통해 국제선을 개최하는 것 같았다! 이런 화상회의에 세계 곳곳의 동수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수십만 명이 동시에 스승님에 대해 생각하고 신에 대해 집중하자 그 엄청난 긍정적인 힘이 온 지구로 퍼져 나갔다.

산호세 센터는 현재 전화선을 통한 저속 모뎀만 갖춘 상태라 동수들은 두 명의 동수 집에서 화상회의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그 동수들 집에는 초고속망이 갖춰져 있는 데다 각 방마다 TV와 모니터에 컴퓨터가 연결돼 있었고, 공간도 동수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했다. 9월 초부터는 산호세 채식식당에서도 화상회의를 볼 수 있게 되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매주마다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산호세 센터 동수들은 하루빨리 스승님과 직접 대화하며 스승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할 날이 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 동수의 집에 모인 동수들이 스승님의 화상회의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산호세 채식식당에서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동수들.



미국 인디애나 소식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 인터넷 화상회의

[인디애나]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간, 미주리, 오하이오 등 미국 중서부 센터 동수들은 주말인 2002년 9월 1일 인디애나 센터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선이(禪二)행사와 스승님과의 화상회의를 가졌다.

스승님은 먼저 당신이 어떻게 동물들을 돌보는지 말씀하시며 가볍게 화상회의를 시작하셨다. 스승님은 동물들을 당신의 침대에 재우기까지 하셨다고 하니 그들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 수 있었다. 스승님은 동물도 인간처럼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며, 스승님이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동물들도 화를 낸다고 하셨다. 또한 동물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적이라고 하셨다.

동수들이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를 한 곡 부른 후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스승님은 동수들의 모든 질문에 애정 어린 답변을 해주셨다.

한 사제는 스승님을 생각하며 직접 작곡한 '나의 어머니'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는 스승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이 노래를 듣고 있던 많은 동수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 사제가 스승님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는 선천적으로 근시가 굉장히 심했다. 의사들은 그녀의 눈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눈에 문제가 생기는 즉시 바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화상회의가 시작되기 바로 전, 그녀의 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의사의 지시에 따르면 바로 병원에 갔어야 했지만, 그녀는 남기로 결정하곤 스승님께 바치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온 마음을 모았다. 기적은 그



인디애나 센터의 선이가 끝난 후 화상회의가 바로 시작되자 모두들 편안하고 행복해 하다.



화상회의가 끝날 무렵 스승님은 우리와 함께 축배를 드시며 이번 행사를 위해 준비된 케이크를 모두 맛있게 나눠 먹으라며 축복해 주셨다.

녀가 노래를 부른 후에 일어났다. 그녀의 눈이 잘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녀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거의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자신의 눈이 그토록 좋아진 것을 감히 믿지 못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가져다 주신 스승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어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캐나다 퀘벡 소식

특별한 체험 - 스승님과의 실시간 화상회의!

[몬트리올] 몬트리올 센터는 지난 2002년 7월 말부터 개척된 전례 계적인 화상회의를 계속 시칭해 왔다. 처음에는 컴퓨터 전문가인 동수로부터 관련 장비를 빌려서 보았으

나, 3주 후부터는 열성적인 동수들이 돈을 모아서 센터용 초고속 인터넷망과 온갖 장치가 구비된 컴퓨터 시스템을 구입해 모든 사람에게 스승님과 만남을 즐기기 위한 최적의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동수들은 스승님과 온라인 만남이 있기 몇 시간 전부터 단체명상을 하며, 최상의 상태에서 스승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상회의 시간 동안, 스승님은 언제나 모든 동수들의 질문에 대해 사랑과 인내로써 답변해 주셨는데, 스승님과 온라인 만남은 마치 스승님이 우리와 함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이 실시간 만남에서 스승님께서 해주신 답변들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

몬트리올 센터 동수들은 이 지역 동수들의 일상에 기적을 가져다 주

시고, 또한 전세계 동수들이 각자의 고장에서 스승님과 실시간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크나큰 기적을 행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이는 진보된 기술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축복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이롭게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방법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 소식

깨달음을 일깨워 준 화상회의

[서울] 스승님께서 2002년 8월 25일 서울 센터와 화상회의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한국 동수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귀중한 기회를 놓칠세라 한국 각지의 동수들도 서울 센터로 모여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동시통역을 위한 전문적인 설비가 갖춰졌기 때문에 동수들은 통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 없이 스승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었다.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스승님은 어머니처럼 각 동수들의 질문에 끈기 있게 답하시며 큰 만족을 주셨고, 사랑과 자비로 모든 참석자들을

감동시키셨다. 원래 질문을 하려던 동수들이 많았으나 다른 동수들의 질문에 스승님이 사랑이 담긴 답변을 해주시자 이미 해답을 얻어 질문을 하지 않기도 했다.

한국 동수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열린 수차례의 화상회의를 통해 많은 축복과 이로움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있는 화상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함으로써 명상수행에 상당한 진보를 하게 되었는데, 한 사제는 이제 일할 때는 물론이고 24시간 내내 지혜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기뻐했다. 모든 동수들이 스승님과 계속 만난다는 기쁨에 젖어 매주 주말마다 서울 센터에서 보게 될 화상회의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다.





호주 소식

신의 안배는 언제나 최선

[시드니] 시드니 센터 동수들은 2002년 9월 1일 스승님과 화상회의를 갖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최근 시드니 센터는 한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일요일에 단체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화상회의도 그곳에서 하게 되었다.

9월 1일 단체명상이 끝난 후, 동수들은 인내심을 갖고 조용하게 앉아 스승님께서 전화가 오길 기다렸다. 처음에 오디오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의 테스트와 조율 과정을 거친 끝에야 정식 화상회의가 진행되었다. 마침내 스승님께서 “안녕하세요(Hallo),*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며 화상회의를 시작하셨다. 스승님의 달콤하고 사랑이 넘치는 인사말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비록 화면에 스승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다소 낙심하긴 했지만 동수들은 환호하며 응답했다. 스승님은 동수들을 안정시키시며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라고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였다. 동수들이 스승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고 만족했으니 말이다. 화상회의가 끝날 무렵, 신은 동수들에게 깜짝 선물을 안겨 주었다. 스승님

의 모습이 갑자기 스크린에 나타난 것이다! 동수들은 “만세.” 하며 기쁨에 넘쳐 소리질렀다.

화상회의가 이뤄지는 동안 신이 동수들에게 던진 몇 가지 장난에 따라 동수들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변화를 체험하면서 스승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며, 스승님의 아름다운 미소와 애정 어린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담았다. 신의 안배는 언제나 최선이다!

* 스승님께서 ‘hello(안녕)’라는 말이 성어나 천상의 존재의 후광을 뜻하는 halo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시며 서로 인사를 건넬 때 ‘hell(지옥)’처럼 들리는 ‘hello(안녕)’ 보단 ‘hallo’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다.

행사 뒷이야기

-모든 이가 하나 되던 순간

시드니 동수들과의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스승님께서 음질이 좋지 않다며 동수들에게 전화에 대고 직접 말하라고 제안하셨다. 내가 질문할 차례가 되었을 때,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지 않아 동수들이 스승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두 명의 연락인이 대화를 중단하고 스승님께 다시 전화를 드리자고 제안하였고 스승님도 동의하셨다. 그러나 내가 전화를 끊고 나자 연락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스승님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망의 순간 익숙한 전화 벨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스승님께서 전화를 하신 것이다! 나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스승님, 정말 멋지세요! 스승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군요!” 하고 소리쳤다. 그 순간 나는 너무 기뻐서 두서없는 말을 했을 것이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 끝나자, 스승님은 연결 작업이 잘 끝났는지, 우리가 스승님을 볼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하셨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스승님의 애정 어린 말씀을 듣고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에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씀드렸다. 바로 그때, 장비를 담당하던 두 사형이, “연결 작업이 거의 다 됐어요. 스승님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해 보세요.”라고 속삭였다. 나는 즉시 스승님께 곧 스승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러나 화면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고, 나는 다시 한 번 간절히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우리의 걱정 어린 마음을 느끼신 스승님은 “나, 여기 있어요!”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안심시키셨다. 마침내 스승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동수들은 모두 기쁨의 함성을 질렀고 많은 동수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느꼈던 사제지간의 간절한 마음은 말로 표현할 길 없었으며,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전해졌다. 진실로 멋진 체험이었다!

남아프리카 소식

새로운 영성의 요람을 만드는 기쁨

[요하네스버그] 요하네스버그 북쪽에 위치한 고탕(Gauteng) 센터는 언덕 위 푸른 초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소박하고 아름답기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새로 심은 어린 나무들이 센터로 불어오는 미풍 속에 춤추는 가운데 채소밭엔 싱싱한 야채가 가득한데, 이 모든 것은 센터에 거주하는 동수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의 산물이다.

페인트칠과 타일 붙이기, 새 조명등 설치와 같은 인테리어 개조 작업이 지역 동수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세심한 계획으로 거의 완성되었다. 물론 스승님의 보이지 않는 안배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2002년 8월 25일 일요일, 센터 최초의 지역선을 마친 후 성대한 낙성식을 치른 명상홀에서 첫 번째 입문식이 행해졌다. 이 행사를 즐겁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많은 사형과 사저들이 열성적으로 함께 일했다.

최근에는 프리토리아 동수들이 다른 센터에 비해 프리토리아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탕 센터로 참석하게 되었다. 동수들은 센터 곳곳에 앉아 향기로운 녹차와 호박씨를 먹으며 아름다운 노을도 감상하면서 스승님의 사랑에 감싸여 행복과 만족감을 누렸다. 또한 스승님의 끝없는 축복에 대해 한없이 감사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신의 은총에서 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센터 앞뜰의 묘목들이 동수들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 고탕 동수들이 독창적으로 개조해 완성시킨 센터 내부.



브라질 소식

진리의 메시지가 상 파울로에 퍼지다

[상 파울로] 남반구에 위치한 브라질은 지금 봄철이라 꽃들이 만발하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최근 상 파울로 동수들은 관음사자가 주최한 가운데 지역 센터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회에서 특이했던 것은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동수들의 친척이나 친구들로 이미 스승님의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청중들은 비디오를 매우 열심히 경청하였고 영적 수행에 관해서도 수준 높은 질문을 했다.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남아 방편





법을 배웠는데, 이는 센터에서 개최해 왔던 기존 강연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방편법 전수 후 참석자들의 얼굴은 그들 가슴속에 흘러 들어온 스승님의 성스런 사랑 때문에 만족스러운 미소로 밝

게 빛났다. 이를 통해 상 파울로 동수들은 이번 강연회도 또한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 소식

‘심신(心身)의 삶, 예술’ 엑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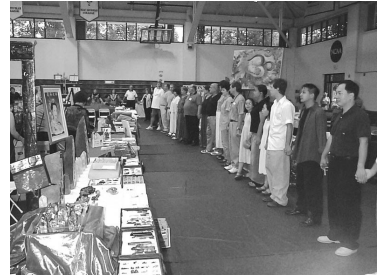
[미주리] 미주리 센터는 오클라호마와 켄터키 센터의 도움을 받아 2002년 8월 3일과 4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제11회 ‘심신의 삶, 예술’ 엑스포에 참가했다. 각처에서 모인 구도자들의 영적 배경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8월 4일에 동수들은 다채롭게 장식된 센터의 부스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의 반 정도가 남아 방편법을 배웠으며, 많은 동수들이 엑스포와 강연회가 열리는 동안 내내 퍼져 있는 스승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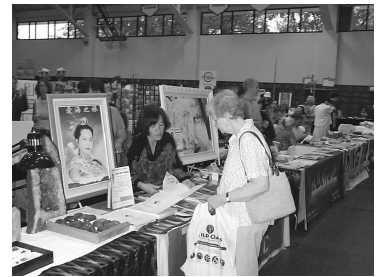


한 사저가 관심 있는 참가자들에게 미주리 센터 동수들이 준비한 팸플렛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엑스포 첫날 우리 부스를 방문한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지(紙)의 한 기자는 우리가 준 자료들에 큰 감동을 받았다. 다음날에는 그의 동료 한 사람이 엑스포가 끝날 무렵 우리를 방문했다. 그는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동수들의 사진을 무척



세인트루이스의 ‘심신의 삶, 예술’ 엑스포에서 미주리 센터의 개막식에 참가한 모든 동수들이 손에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었다.



한 여성이 비디오 강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명하고 있다.

찍고 싶어했는데, 스승님의 법상을 찍고선 매우 기뻐하였다.

미국 메사추세츠 소식

진리를 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보스턴] 2002년 6월 보스턴 지역의 동수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어 8월에는 메사추세츠의 우스터(Worcester) 시립 도서관에서 또 한 번의 홍법 강연회를 열었다. 이



번 비디오 강연회에서 청중들은 스승님의 강연에 놀라운 관심을 보였는데,

도서관의 한 기술자는 스승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강연회장 안까지 들어와 한치 흐트럼 없이 집중하여 비디오를 보았다. 강연회가 끝난 후, 그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 강연회 때 상영되었던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갔다.

8월 세미나의 결과는 고무적이어서 참가자의 95%가 남아 방편법을 배웠고, 다섯 명이 입문을 신청하였다. 보스턴 동수들은 신의 복음을 지역 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매우 깊이 감사드렸다. 스승님의 사랑은 해탈을 갈망하는 많은 영혼들을 일깨워 주셨다.



포모사 소식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지붕] 포모사는 지리적 여건상 늦여름과 초가을 무렵 종종 태풍의 피해를 입곤 한다.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중급 태풍인 '신라쿠(Sinlaku)' 호가 9월 초 만조기에 엄청난 집중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로 인해 가장 타격이 클 포모사 북부 지역은 9월 6일 전면적인 경계태세에 돌입하게 되었다.

칭하이 무상사 수륙구조대 소속 동수들은 이날 오후 타이베이 소방서 측과 구조 준비를 통합하기 위해 집결하였다. 구조대는 스승님의 사랑을 안고 홍수가 잘 나는 시즈 지역 지휘사령부에 도착해 지시를 기다렸다. 그러나 신의 은총 덕분에 지역 주민들을 고도의 경계태세에 몰아넣었던 태풍 신라쿠는 포모사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으로 빗겨 나갔고, 상당한 비를 뿌리긴 했지만 태풍이 지나간 경로에도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끼쳤다. 이에 구조팀은 9월 7일 오후에 대기 명령



칭하이 무상사 수륙 구조대원들이 구조활동 명령을 기다리며 명상하고 있다.



연합일보 2002년 9월 8일자 헤드라인 기사:
칭하이 무상사 수륙구조대의 대원 총 26명이 직장을 떠나 시즈에서 대기하다. 2001년 9월 태풍 '나리' 호 당시 펼쳤던 그들의 구조활동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여전하다.

종료와 임무를 해제했다.

행사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seminar/>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minar/index.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

진짜 속마음은?

청하이 무상사/ 2001. 6. 1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줄 축복사탕을 두 개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는 녹색, 다른 하나는 빨간 사탕이었는데, “어떤 사탕을 갖고 싶니?”라고 묻자 손자는 녹색 사탕을 집었어요. 이를 궁금하게 여긴 할아버지가 물었지요. “왜 빨간색이 아닌 녹색을 집었지? 빨간 게 더 예뻐 보이잖니.” “녹색은 소망의 색이라서 그걸 집은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럼 네 소망은 뭐니?” 할아버지의 이 질문에 손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소망은 그 빨간 사탕마저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차도 골동품!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메리에게 친구가 물어봤어요. “맞선 어떻게 됐어?” “아, 정말 끔찍했어.” “아니, 왜?” 친구가 묻자 메리가 대답했어요. “내 참, 1932년형 몰스로이스를 타고 나왔지 뭐야.” 그래서 친구가 말했지요. “우와, 그건 수집품이라 굉장히 비싼 차잖아. 대체 뭐가 문제야?” 그러자 메리가 말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차의 본래 주인이라는 거야!”



감자 체벌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남자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주문했어요. 주문한 요리가 나온 뒤 그는 갑자기 종업원을 불렀어요. “이리 좀 와 봐요.” 종업원이 오자 그는 접시에 담긴 감자를 보여 주며 “이 감자는 질이 아주 나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감자를 집어 들고 찹찹 찹찹 때리더니 다시 접시에 내려놓으며 손님에게 말했어요. “손님, 만약 이 감자가 또 말썽을 부리면 저를 불러 주세요.”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38/jkl.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38/jkl.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38/jkl.htm> (미국)



우리는 천국을 따라잡고 있다

청하이 무상사/ 2002. 7. 28. 미국 휴스턴 센터와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수십 년 전 아직 이 ‘일’을 말지 않았을 때, 나는 신문에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서로의 얼굴까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기술이 그렇지요. 그 예상이 실현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만간 더 흥미로운 소식들을 접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에 말했듯 어떤 행성에서는 아이를 엄마의 태내에서 키울 필요가 없다고 한 것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기술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빨라서 숨가쁘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개

발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임신할 때 생기는 양수와 같은 액체를 담은 일종의 상자를 발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자에서 아이를 키워 보려는 거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여러분이 열명의 아이를 갖고자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대중 웃음) 아홉 달 동안 매주, 혹은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일을 마친 후에도 언제든지



아기를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기의 생김새나 성별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이지요. 우리는 고등 행성의 발전된 수준을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우리는 레이저와 빛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겁니다. 내가 포모사에서 했던 초창기 강연 중에 (당시 나는 중국어를 잘할 수 없었어요) 보다 진보된 행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선치료법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과학자들이 지금 이 행성에 태어나면서 그들의 값진 기억들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면에서 그들은 우리의 행성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해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곧, 가까운 미래에 날아다니는 차 같은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 체증이 없어져 서로 만나기가 쉬워지겠지요. 또 빠른 교통수단도 생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게도 매우 흥분되는 일입니다. (*세계 각 센터들과의 화상회의를 가리킴) 여러분과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수행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해피 요기인 여러분들 덕분이지요. (대중 박수) 이 모든 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흥분된 나머지 여러분과 많은 다른 단체의 수행자들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단체 소속은 아니어도 그들 역시 빛과 소리를 명상하거나 혹은 다른 덜 진보된 방법으로 명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들 나름대로 신과 접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기운이 상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성의 자장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고등 행성에서 온 고도로 진보된 과학자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기억을 많이 잃지 않고 비교적 고통 없이 우리 세계에 환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토록 놀라운 기술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비록 과학자나 컴퓨터 천재는 아니어도 부지런히 명상하며 자신과 자신의 기운,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이상 우리는 이 행성의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입니다. 이진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과학자나 연구자들의 노고일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적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영적 수행의 산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과거

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여러분도 알지요! 그후로 갑자기, 단지 15년 만에 이 모든 것이 개발되었고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기술 진보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행이 낳은 실제적인 산물입니다. 수행의 결과는 단지 영적인 깨달음이나 개인적인 행복, 지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흥미롭고 보다 진보된 행성을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곧 다른 은하계, 다른 행성계를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로봇이나 보내고, 화성에 가서 먼지만 파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살고 있는 영적으로 진보된 행성에 가서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가르칠 수도 있고, 인사도 나눌 수 있으며, 수억만 마일,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서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인사를 하듯이 인사하는 것이지요. 그럼 멋지지 않겠어요? (대중: 예.)

그러므로 여러분, 황금의 길을 계속 걸으며 결코 한 순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도(正道)를 걷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증합니다. (대중 박수)

우리는 하나



위니 사저/ 홍콩 (원문 영어, 중국어)

사랑의 바다 안에 우리는 하나
내면의 빛과 소리 속에서 감사하게도
진정한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을 따라 우리는 끝없이 날아올라
별도 넘고 해와 달도 넘어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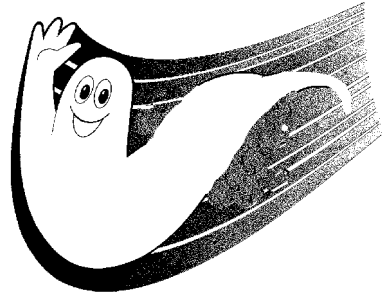
사랑의 바다 안에 우리는 하나
자유와 기쁨, 평화가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엔 감사와 편안함이 가득합니다
스승님을 따라 우리는 끝없이 날아올라
별도 넘고 해와 달도 넘어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은 한없이 넓디넓어
우린 더 이상 방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하나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내자만 찾으면,
그분을 따라 사랑의 바다와 하나 되면,
그분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모든 답이 얻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오르며
우리의 이상, 그분의 모범을 따라갑니다
칭하이 무상사
나의 사랑

신의 축복으로 전세계의 동수들은 인터넷의 첨단 기술을 통해 스승님과 각 지역 센터와의 화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는 줄곧 내 마음속에 메아리치던 노래였는데, 홍콩 비디오 화상회의에서 이것을 시로써 스승님께 헌정할 수 있게 되어 나는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스승님의 사랑 어린 격려를 받으며 나는 무척이나 감동스런 마음으로 이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고, 그 아름다운 느낌에 내 몸은 곧 자연스레 리듬을 타게 되었다. 마치 파도가 해변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 같기도 했고, 어머니가 흔들어 주는 요람에 누워 있는 듯하기도 했다. 사랑의 바다에 잠긴 느낌은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다. 사랑과 지혜의 완벽한 본보기이신 온 우주의 자애로운 어머니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미소를 띠며 돌아가신 '아마'

주안리유 사저/ 포모사 지릉



스승님께 입문한 지 16년 동안, 나는 동수들과 그 친척들이 죽을 때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셀 수 없이 들어 왔다. 이제 나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나의 할머니는 올해 아흔다섯이다. 16년 전 할머니는 우리와 함께 신디엔(포모사에 만들어진 스승님의 첫 번째 센터)에 찾아가 스승님의 설법을 들곤 했다.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스승님으로부터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스승님은 항상 농담을 건네어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셨다. 또한 스승님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할머니를 '아마'라고 부르셨는데, '아마'는 대만어로 할머니를 지칭하는 호칭이다. 할머니가 입문을 신청했을 당시엔 연세가 80이었는데도 딸과 손자, 손녀, 증손자까지 모두 입문자였기 때문에 스승님은 즉석에서 허락해 주셨다.

입문을 하고 나서 할머니는 새롭게 태어나 탄 사람이 되었다. 원래는 노인성 건망증이 아주 심했는데, 입문하고 나선 기억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또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약을 드시고 주사를 맞았지만, 입문하신 뒤엔 몸이 훨씬 건강해지셨다.

그러다 2002년 7월, 할머니는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 날, 가족의 도움으로 목욕하는 동안 할머니는 줄곧 위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도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쉬면서도 계속 위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도 모른 채 계속해서 미소만 짓고 계셨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숨을 내쉬곤 세상을 떠나셨다. 정말 신기한 임종이었다! 할머니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광친 노화상*과 똑같이 앉아서 미소를 머금은 채 왕생할 수 있었다. 정말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포모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으로 70년이 넘게 수행을 하셨고 앉아서 열반하셨다.)

스승님은 일찍이 말씀하시길, 동수들이 죽을 때 불보살들이 맞이하러 오며 천국의 장엄한 경계가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셨다. 그러니 할머니가 줄

곧 위를 쳐다보며 미소 짓고 계셨던 게 당연하다. 만일 할머니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윗 세계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도 아무런 미련 없이 이 세상을 훌쩍 떠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후대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아서, 심지어 시후 센터에 가서 스승님께 집안의 대가 끊어질까 봐 두렵다며 손자가 빨리 결혼하게 설득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스승님은 육신을 떠나는 입문자들에게 대해, "입문할 때 나는 이미 여러분의 천국행 티켓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때가 되면 나는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가 즐기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우리 동수들이 지상 최고의 행운아임은 말할 나위 없다. 스승님을 따라 수행하는 것은 보험을 만 군데 들어 놓은 것보다도 더 안전한 일이다. 할머니의 죽음은 내게 최고의 효도는 '입문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스승님을 믿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무지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

재난을 통한 일깨움

포모사 타이베이 린메이팡 사저 구술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기록

지난 2002년 음력 설날 이웃집에서 발생한 무서운 화재를 생각하면 아직도 린 사저는 간담이 서늘해지곤 한다. 린 사저의 집은 온통 4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 음력 설날, 왼쪽으로 이웃한 쉬씨 집 사람들은 평소대로 4층의 불단에서 공양을 올리고 향을 사른 후 TV를 보러 2층의 거실로 내려왔다.

잠시 후 린 사저의 집 전등이 깜박거리기 시작하더니 타는 냄새가 났다. 당시 갓 입문한 린 사저의 남편, 허 사형은 놀라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달려나갔다. 맞은편에 사는 이웃이, “쉬씨 맥 4층이 불타고 있어요!” 하고 알려주었다! 허 사형이 즉시 쉬씨의 집 4층으로 달려가 보니 끔찍하게도 공양물이 놓인 불단이 불길에 덮여 있었다. 천장에도 불이 붙어 천장의 전등과 전선이 녹아 내리고 있었고 금속 지붕도 불길에 우그러져 있었다! 허 사형과 린 사저는 대야와 양동이에 물을 담아 불을 끄려고 해봤지만, 소화기 없이 그런 적은 물로는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다.

불길이 견잡을 수 없게 되자, 린 사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때 갑자기 낯선 두 사람이 큰 소화기를 하나씩 가져와 그녀의 집 앞에 놓고 갔다. 쉬 부인은 집안에 들어와 집문서와 보석함, 기타 귀중품들을 한 아름 들고 나와 린 사저에게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하며 슬픔과 눈물에 젖은 채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린 사저는 한 손에 한 개씩 소화기를 들고 4층에 있는 남편에게 가져가려고 했지만, 소화기가 너무 무거운 데다 계단이 연기로 자욱해 움직이기 어렵게 되자, 서둘러 스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렸다. 뒤돌아서 슬픔으로 망연자실한 쉬씨 가족의 모습을 본 린 사저는 그들에게 스승님의 명호를 크게 외워 달라고 부탁했고, 결국에는 4층까지 올라가 허 사형에게 소화기를 전달해 줄 수 있었다. 그 뒤 소방차들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속속 도착해 불을 끄기 위해 준비를 갖췄을 때는 이미 허 사형 혼자서 그 거대한 불길을 다 잡은 후였다.

훗날 린 사저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소화기를 갖다 준 두 남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부근에 사는 사람 같진 않았어요. 어

췌든 소화기를 가져다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소화기가 없었다면 허 사형은 불을 끄지 못했을 거예요.” 린 사저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 고마운 남자들이 왜 소화기를 불이 난 집 앞에 놓지 않고 자신의 집 앞에 두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시간도 교묘히 맞아떨어졌다!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된 린 사저가 아래층에 내려가 대피하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연 바로 그 순간, 두 남자가 소화기를 갖고 도착한 것을 봤던 것이다. 린 사저는 그때 마침 불길을 잡도록 소화기를 찾게 해달라고 내심 기도하고 있었다.

더욱 신기했던 것은, 화염이 린 사저의 집을 건너뛴 채 오른편 이웃집에까지 미쳐 그 집 현관 차양 문에 구멍을 내고 전선도 끊어뜨렸는데, 놀랍게도 두 집 사이에 낀 린 사저의 집은 아무 이상도 없었다는 것이다! 4층에 있었던 물건들뿐 아니라 왼쪽 집과 마주한 벽에 놓여진 세탁기마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누구라도 이 일을 기적이라고 할 것이다! 허 사형과 린 사저는 온 가족이 재난에서 무사하고 허 사형이 부상도 없이 큰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스승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렸다.

이 화재사건을 통해 린 사저의 온 가족은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더욱 확고한 신심을 갖게 되었다. 대학생인 딸 역시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명상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문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스승님의 무한한 힘에 깊은 감동을 받아 지금은 매일 스승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나중에 입문할 생각으

로 우선 방편법을 수행하고 있다. 린 사저는 이 사건을 통해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이 깨어난 것과, 온 가족이 동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충족시켜 주신 스승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렸다.

확신 스승님이 에어로빅을 가르쳐 주시다!

중국 본토 찌지앙 성 동수

몇 달 전, 한 급우가 스승님의 사진을 몇 장 주었다. 나는 같이 사는 조카에게 그 중 한 장을 주면서 침대 옆에 걸어 두라고 했다. 똥똥한 내 조카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여섯 살짜리 여자 아이다.

이틀 밤이 지나고 잠잘 준비를 할 때, 조카가 갑자기 에어로빅 동작을 시작했다. 운동을 하면서 조카는 동작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 동작이 1990년 포모사 산티먼 국제전에서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체조라는 걸 깨달았다. 예전에 그 테이프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인상이 깊었다. “누가 네게 이걸 가르쳐 주었니?” 하고 조카에게 물어보자 조카는 대답하길, “스승님이 오늘 아침 유치원에서 간식 먹기 전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스승님이 ‘너는 좀 똥똥하니 이 운동을 하면 몸에 좋을 거야.’ 하고 껏속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웠죠.”라고 했다. 또 조카는 누워서 자전거 타기 동작을 할 때 손을 허리 뒤로 놓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이렇게 해야 몸을 거꾸로 세워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승님이 어떻게 오시니?”라고 물어보자 조카는 이렇게 대답했다. “스승님은 우주에서 오시는데, 처음에는 로켓처럼 날아오고, 그 리곤 흰구름처럼 둥실둥실 떠다니요. 하얀 모자를 쓰고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계시는데, 우리 반에 들어오실 때는 아주 사뿐사뿐 걷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은 스승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몰라요.” 나는 또 질문했다. “몇 사람이랑 같이 오시니?” “한 여자 아이가 스승님과 함께 왔어요. 외국 아이인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스승님이 그 애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스승님은 키가 얼마나 크시지?” “우리 엄마보다 약간 작아요. 여자 아이는 스승님보다는 작지만 나보다 좀 크고요. 체조를 다 가르쳐 주신 다음 스승님은 조용히 떠나셨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왔었던 걸 몰랐어요.” 조카의 대답에 왜 그런지 묻자, “우리가 수업할 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거든요. 스승님은 흰구름 같아서 아무도 스승님이 오신 걸 몰라요. 그냥 구름이라고 생각하죠.” 하고 대답했다.

천진하고 마음이 맑은 조카에게서 이 아름답고 놀라운 체험을 듣고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우리 온 가족을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스승님에 대해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감사함을 느꼈다!

두려움의 진상 선종 귀신 이야기

청하이 무상사/ 1994. 8. 14. 미국 텍사스 오스틴 센터 단체명상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439



지금은 저녁이니 여러분의 담력을 시험하기 위해 귀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을지 한번 보겠어요. 그럼 자신의 담력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까?

옛날에 아주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녀는 병상에 누워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당신을 두고 떠나기 싫어요. 부디,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녀는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어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만약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귀신이 되어서 당신을 괴롭힐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요! “늘 따라다니며 괴롭힐 거예요, 영원히!” 그녀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부인이 무서웠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는(스승님께서 책을 가리키시며) ‘부인을 존중했다’고 써어 있군요. 우리는 항상 부인을 존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인을 존중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지요! 그 남편도 부인을 존중해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신은 늘 인간을 곤경에 빠뜨리기에, 그는 아름답고 더 젊고 보다 매력적이고 다정하며 심지어 부유하기까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자라니, 세상에! 게다가 그녀는 전 부인보다도 그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정말 너무하는군요! 장례식을 치른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어찌면 좋지요?

그는 그 여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낮에 약혼식을 치르고 밤이 되자 귀신이 된 전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흥, 약속대로 내가 왔어요.” 귀신은 남편 앞에 나타나 약속을 어겼다며 그를 나무랐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성실하지 않았으며, 나쁜 남편이었고 양심도 없고 형편 없는 인간에다 제대로 된 관음법문 수행자도 아니었다며 북아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바짝 겁이 났습니다. 소름 끼칠 만큼 귀신이 똑똑했기 때문이지요. 귀신은 남편과 약혼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약혼녀와 언제 무엇을 했으며, 그녀에게 언제 무슨 선물을 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줄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전부 다요! 그래서 그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녀가 무서웠지요.

그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자지도, 먹지도 못했고, 감히 약혼녀를 만나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지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절에 가서 선사에게 문제를 다 털어놓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선사는 모든 것을 돌봅니다. 귀신과 결혼 문제까지 말입니다.

선사는 정말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전 부인은 귀신이 되었습니다.” (이전 이미 아는 사실이지요.) “게다가 그녀는 아주 똑똑해서 당신이 새 약혼녀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지요. 사실 이런 귀신이라면 그녀를 존중해야 마땅하지요. 어쨌든 그녀를 쫓아낼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에 귀신이 나타나면 내기를 하십시오.” 선사는 귀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을 테니, 만약 귀신이 틀리게 답하면 더 이상 그를 찾아와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지요.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남편을 돌볼 수 없지요. 그를 위해 요리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돌볼 수 없으니까요. 그



러자 남편이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녀에게 무엇을 물어보죠?”

“다음에 귀신이 오면 쿵을 한줌 쥐고는 몇 개인지 맞춰 보라고 하세요. 틀림없이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귀신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 양심, 상상이 빚어낸 환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 부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당신 마음이 그런 환영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만약 그녀가 대답할 수 없으면, 당신은 그것이 환상임을 깨닫게 되고, 그럼 귀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날 밤, 귀신이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귀신에게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고 아주 총명하니, 내가 어찌할 재간이 없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말했지요. “그래요, 나는 다 알아요. 당신이 오늘

선사를 찾아가 우리 이야기를 한 것도 알고 있어요.”

“중소, 당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니, 그럼 내 손에 쿵이 몇 알 있는지 맞춰 보시오.” 남편이 이렇게 묻자마자 귀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알겠지요?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아니죠! 그럼 오늘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 귀신 이야기

청하이 무상사/ 1995. 1. 8. 포모사 시후 센터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466



인도에 데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대개 신과 관련된 성스럽고 멋진 이름을 짓습니다. ‘데비(Devi)’는 천녀(天女)를 가리키는데, 아주 큰 뜻이 담겨 있지요. 인도 사람들은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 이름을 인드라(계석천)라고 짓기도 합니다.

데비라는 이 인도 여인에게는 라후브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데비의 시부모와 라후브의 여섯 삼촌 등 많은 가족을 죽인 사악한 영혼이 그 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데비와 열 살 남짓한 어린 아들만이 살아 남게 되자 그녀는 유령이 깃든 집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하곤 아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 거기서 장사를 하며 먹고살았습니다.

몇 년 후, 성인이 된 라후브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조상이 살던 집을 떠나야 했는지 친구들이 궁금해해요.” 인도 사람들은 중국이나 어울락, 다른 동양인들과 마찬가지로 조상 대대로 물려 온 집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간의 사정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옛날 집에서 우리 가족 중 8명이 귀신에게 죽임을 당했단다. 그래서 난 우리가 다음 희생자가 될까 봐 무서웠지.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가할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결정했단다.” “참, 집에서 사람이 죽는 게 뭐 그리 이상하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법이잖아요. 사람은 때가 되면 죽기 마

련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가 조상이 주신 집을 떠나야 해요? 어머니, 다시 돌아가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아들의 용감한 말에 설득당한 어머니는 결국 그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집을 꾸러 옛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렇지만 데비의 마음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끼 식사 전에 귀신에게 음식을 바쳤고, 아들은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데비가 아들이 무척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자, 라후브는 귀신의 몫까지 먹고 싶어했습니다. 당연히 데비는 그를 말렸지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누구 주려고 음식을 남겨 놓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다 실컷 먹지도 못했

고요.” 아들의 말에 데비가 대꾸했습니다. “이 음식은 귀신에게 바치는 공양이야. 그는 이미 우리 조상을 8명이나 죽였으니, 음식을 바치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도 죽일 거야.”

라후브는 어머니의 말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왜 그렇게 귀신에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귀신은 가족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데비는 8명의 가족이 연달아 죽었기에 가족의 비극이 귀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귀신을 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다고 생각한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먹게 해주세요. 귀신은 없어요!”라고 고집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해도 아들은 그 음식을 무척이나 먹고 싶어했습니다. “제발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돼! 귀신이 먹게 그냥 두어라. 네가 그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널 죽일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하니?”

그날 귀신이 정말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라후브는 그 자리에 앉아 귀신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귀신이 오자 물었습니다. “이봐요, 귀신 양반!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귀신이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자네 할아버지의 셋째 동생이다. 내가 죽은 후, 나는 자네 할아버지와 삼촌들을 죽였다. 그들이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가난과 고통 속에서 죽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난 그들을 모두 죽여 복수를 했네.”

이에 라후브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나는 네 삼촌들과 할아버지를 파리 잡듯 손쉽게 죽였지. 그건 별일도 아니었지! 네 어머니도 죽이려 했는데 도망을 갔더군.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매일 음식을 공양하길래 너희 둘은 살려 두었다. 잘 들어라. 나는 눈 깜짝할 새 천사들이 사는 천국에도 갈 수 있고, 귀신의 세계에도 갈 수 있다. 내가 굉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라후브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나를 신들과 천사들에게 데려갈 수 있나요?” 귀신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지.” 라후브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나 대신 그들에게 말 좀 전해 줄 수 있나요?” 귀신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무슨 말을 전하고 싶은 거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살 것인지 물어봐 주세요.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귀신은 “좋아, 그렇게 해주지.” 하고는 떠났습니다.

다음날 귀신이 라후브를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천사가 말하길 너는 6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더군.” “그럼, 혹시 40이나 50세쯤에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는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원래보다 일찍 살해될 수도 있는지, 만약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100살까지 살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도 물어봐 주세요.” 라후브의 말에 귀신이 말했습니다. “좋아, 다시 물어봐 주지.” 그리고선 귀신은 천사에게 물으러 다시 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귀신은 라후브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천사들에게 네 말을 전하긴 했는데, 천사가 대답하길 그건 불가능하다더군. 너는 단 1초도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죽을 수도 없어. 인간의 수명은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라후브는 즉시 귀신 뒤편으로 놓아 둔 음식을 먹어 버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큰 나무 막대기를 들고 와 귀신을 때리며 쫓아냈습니다. “썩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죽도록 꽤 주마.” 그러자 귀신은 날카로운 송곳니와 발톱을 드러내며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데비는 아들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라후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천사들이 우리는 더 빨리, 더 늦게 죽을 수도 없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귀신을 두려워하세요?” 귀신은 음식을 바치지 않으면 두 모자를 다 죽일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 역시 그들의 죽음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다는 천사의 말을 직접 들었던 까닭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고 라후브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쫓겨났습니다. 라후브가 진상을 알게 된 후 귀신은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수 없었고, 귀신 역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중 박수)

만약 신과 부처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래도 귀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신과 부처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귀신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신과 부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너무 약한 거지요. 그래서 귀신은 비교적 약한 사람들만 괴롭힙니다. 수행을 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귀신도 두려워합니다.

신구의(身口意) 정화의 중요성

칭하이 무상사/ 1996. 3. 12. 미국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535

중국에는 『요재지이』(聊齋誌異, 여우, 귀신 등에 대한 중국의 이야기책)에서처럼 많은 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완전히 허구가 아닌 것들도 있고, 또한 그 속에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매우 흥미로워서 많은 것들을 창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티베트에서는 수행을 하려면 어떤 신에게 완전히 헌신해야 하는데, 그럼 어느 날 그 신이 실제 사람처럼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스로 창조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좋아하는 신이 없으면, 마음으로 신, 승려, 여자 등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연습하다 보면 이들 가상의 존재가 현실화되어 진짜처럼 되고 그 나름의 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만일 여러분이 이 창조된 허상을 제어할 만한 힘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귀신 이야기와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 마음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우리의 생각이 생활 양식과 삶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감기가 전염된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의 작용은 그보다 훨씬 잘 전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불을 외우거나, 신께 기도하고 명상하며 늘 사물의 긍정적인 면만을 생각하면 되니까요. 또 어떤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매우 혈기왕성한데 주변 환경 또한 늘 이성교제를 권유하고 부추긴다면, 때로는 몸의 세포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마음을 다른 차원(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심)에 두고 세포에게 반대로 지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몸의 요구가

그것을 제어할 정신력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한 채 꿈속이나 현실에 나타나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런 경우 그것이 마음이 지어낸 환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귀신을 다루려면, 그가 대답할 수 없는 뭔가를 물어봐도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유령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곧 여러분이니까요. 그러니 대답하기 어려운 것을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령이 다시 나타나면 쌀을 한 주먹 쥐고 물어보십시오. “손 안에 쌀이 몇 톨 있지?” 그는 분명 대답하지 못하고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제서야 그것이 자기 자신을 너무 억눌러서 나타난 마음의 환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억누르지 마십시오.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해결하세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러면 귀신을 불러들여 번거로움을 자초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행동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면의 생각 또한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포옹할 때, 상대방은 예의상 “안녕하세요?” 하며 가볍게 포옹할 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보통의 상대방은 다소 냉담하겠죠.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을 속여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럼 가정에 불화가 생기겠지요. 그래도 여러분은 영문도 모른 채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고, 상대가 요즘 들어 기분이 안 좋거나 영망이 났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보는 내면으로 시공을 초월해 전달되고 기록됩니다.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자기

혼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전달됩니다. TV와 라디오 또는 CD 같은 것들은 한낱 플라스틱, 쇠붙이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것이지만 온갖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나 신의 힘이 어찌 그보다 미세한 것들을 기록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생각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현저히 눈에 띄는 말이나 행위는 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친구의를 가능한 한 청정히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내게 기쁨을 안겨 준 관음법문

엘라드 아곱 사형/ 카메룬 콤바 (원문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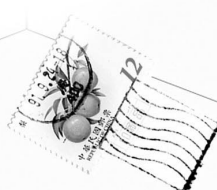
나는 운 좋게도 1972년부터 수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궁극의 진리를 찾기 위해 갖가지 종파에 대한 서적을 하나씩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세계의 수많은 영적 스승들을 만나 입문 전후로 그들을 따라 공부했다.

그러나 내가 접한 대부분의 수많은 종파와 스승들의 가르침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했고, 이로 인해 나는 큰 실망과 내 인생에서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30여 년 간의 구도 생활 끝에 나는 정말 운 좋게도 한 친구를 통해 칭하이 무상사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나는 서둘러 포모사 본부에 연락을 취해 정보를

얻었고, 또 콤바의 사형들과 함께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하면서 관음법문에 입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입문한 후, 나는 마침내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갈망해 왔던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였다. 이제 이 세상은 내게 그저 덧없는 환상의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갈지도 안다. 나의 평생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님의 자비로운 현존(現存)과 인도에 감사드린다.



AIR MAIL

동물 역시 신의 도구

알러 사저/ 포모사 미아오리

나는 매일 새들이 지저귀고 꽃내음이 물씬 피어나는 산속에서 신선이 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산에는 사랑스런 동물들도 많지만 뱀들도 많이 산다. 처음 뱀을 봤을 땐 매우 무서워했지만 얼마 후에는 익숙해져 뱀을 봐도 먼저 지나가도록 내버려두게 되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뱀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스승님을 따라 몇 년 간 수행하면서 여러 면에서 진보하였고 또 자신감도 생겨 침착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선 끝에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뱀은 무서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문 밖 돌벽에 작은 독사가 한 마리 있는 것을 발견한 나는 순간 겁에 질려 집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나는 잠을 생각도 못 한 채 물릴까 봐 무서워하며 뱀이 스스로 가 버리길 바랐다. 그러나 내가 밖으로 외출해야 했을 때도 뱀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몇 시간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 잘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마침내 큰 마음을 먹고 자루와 가는 대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뱀을 잡는 방법은 길고 가는 막대기로 뱀을 들어올려 자루에다 넣는 것이다. 그런 후 다른 곳에다 풀어 주면 된다.) 다행히 돌아와 보니 뱀은 사라지고 없었다.

또 한번은 다른 산에서 잠시 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밤 방에 들어와 불을 켜 보니 두 마리의 독사가 방안에 있는 것이었다. 그 집은 산비탈에 붙은 벽 쪽에 수도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구멍이 생겨 수도관이 보였다. 그 구멍이 보기 흉해서 얇은 나무판자로 덮어 놓긴 했지만 구멍을 완전히 메운 건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 뱀이 그 판자의 틈새로 들어왔던 것이다. 내가 들어오자 뱀은 다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나무판자가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을 뿐 방에서 밀고 나갈 수는 없게 되어 있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때 판자 뒤에서 다른 뱀의 꼬리가 보였다. 아마도 친구의 탈출을 도우려고 온 것 같았다. 나는 무서워 식은땀이 나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얼른 짐을 챙겨 뛰어나와 다른 곳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뱀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웃이 뱀이 완전히 가 버렸는지 확인해 주려고 우리 집에 왔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고무장화를

신고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들고 서랍장과 테이블을 살살이 뒤집어 보는 등 아주 세심하게 집안 곳곳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구멍을 막고 있는 얇은 나무판자를 들어올리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우리에게 혀를 날름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간 크게도 판자를 치우고 아무렇지도 않게 뱀을 쳐다보았다. 반면 나는 무서워서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판자 주위로 뱀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많으니 구멍을 완전히 막아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판자에 못 치는 것을 도와주었고 또 집착제로 단단히 봉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감동받았다. 매사를 세심하게 처리하는 천성이 그녀를 용감하게 만든 것 같았다.

얼마 후 원래 살던 집으로 다시 옮겨 온 후, 한동안은 예전에 문 앞에 보이던 뱀의 자취가 보이지 않았다. 한번은 마을을 떠나 있을 때, 나는 친구에게 그 뱀에 대한 얘기를 하며 그제 아직 살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뱀 허물이 바깥쪽 벽에 붙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뱀은 아마도 내 말을 듣고는 직접 행동으로 대답해 준 것 같았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집 주위를 둘러보니 비로 인해 진흙으로 된 옹벽에 아주 많은 구멍들이 생겨나 있었다. 뱀들이 살기에 딱 맞게 생겨서 나는 시멘트로 그 구멍들을 막기로 했다. 우선 석회를 발라 혹시 그 안에 살고 있을지 모를 작은 동물들이 이사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정말 그날 밤 문 밖 물통 옆에서 작은 초록 뱀이 나타났다. 뱀의 꼬리를 본 순간 나는 집으로 뛰어 들어가 컴퓨터를 방충문 가까이 놓고 스승님의 강연 MP3를 틀어 놓았다.

몇 시간 후 잠에서 깨어나 불을 켜 보니 뱀은 아직도 밖에 있었다. 뱀은 머리를 컴퓨터 앰프를 향한 채 쪽 뻗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컴퓨터에선 이란 선철(禪七)에서 스승님이 동수들과 함께 부르신 불찬이 흘러 나오고 있었다. 한참 동안 뱀은 꼼짝 않고 있어서 죽은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살아 있으면 불빛이나 사람의 인기척이 조금만 나도 도망치기 때문이다. 불찬이 끝나고 동수들이 체험을 발표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뱀은 사라졌고, 나는 그때 뱀이 죽은 게 아니라 불찬을 들으며 삼매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뱀도 아주

사랑스럽고 대단히 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은가! 마치 그 뱀들은 텔레파시가 있는 것처럼 내가 멀리서 한 말도 알아들었으며, 내가 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나타나곤 했다. 영락없었다! 스승님도 이전에 말씀하시길, 동물 역시 우리의 진보를 돕기 위한 신의 도구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번에 정말 그렇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뱀에 얽힌 경험은 내게 나 자신이 무서워하는 존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수행의 길목에서

항상 청정한 생각을 유지하라

이즈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2002년 5월, 나는 플로리다 센터에서 열린 스승님의 생신 기념 어머니날 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틀간의 행사가 끝난 후에도 많은 동수들이 남아 있자 자비로우신 스승님 역시 계속 머무르시며 수시로 우리를 보러 오시고 법문도 해주셨다.

경축행사가 끝난 다음날 오후 스승님의 말씀을 들은 후 의무실을 지나고 있을 때, 한국 동수 한 명이 갑자기 내게 다가와 한국 사저 한 명이 몹시 아파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군가 내가 의사라고 알려줘서 내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 사저는 너무 아파서 걸을 수조차

없었는데, 그녀 남편의 말을 들으니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의무실 캐비닛을 살살이 뒤지며 필요한 약을 찾아보았지만 아스피린밖에 발견하지 못했다. 이어서 나는 텐트로 달려가 준비해 온 의료 기구를 가지고 그 한국 동수를 따라 아픈 사저에게 왕진하러 갔다.



당시 그 사저는 열이 높은 데다 온몸이 다 아팠다. 통역에 따르면 그녀는 전날부터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협심증(심장 박동시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흉부 통증) 증세를 보여 다른 내과의 동수가 혀 아래에 니트로글리세린(협심증에 대한 일반 처방)을 투약하고 주사도 놓아 주었다. 한 한 의사 동수도 침과 부항으로 치료해 주었다. 동수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그 사저의 가슴 통증은 한층 누그러졌다. 그러나 다음날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서 약을 먹어도 고통이 경감되지 않았다. 그후 그녀는 자신에게 흉부상 낭창(면역계의 이상으로 생기는 염증)이 있다고 털어놓았고, 그 순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는 그녀에게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또 치료를 계속하면서 나는 그녀에게 찬물로 목욕하지 말라고 일렀다. 나는 미국의 병원에서 치려야 할 혈액의 치료비와 언어 장벽을 생각하니 이 사저가 몹시 걱정되었다. 당시 우리로선 스승님께 기도를 드리는 수밖에 없었다.

스승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나의 ‘무지’가 일어나 마음속으로 불평을 하게 되었다. ‘이 사저는 성심으로 당신을 보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처럼 아프도록 하실 수 있나요? 더구나 여긴 센터잖아요!’ 나는 모든 책임을 스승님께 돌리며 사실상 우리가 스승님께 무수한 업장을 지워드리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심지어 나는 스승님께서 과연 그녀가 아프다는 걸 알고 계실까 하는 의구심마저 품었다.

치료를 마치고 주방으로 가서 바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스승님께서 내 쪽으로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다. 오, 세상에! 그 순간 좀 전에 스승님께 했던 불평과 의심을 떠올리니 정말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평소에는 스승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망했지만, 결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니었다. 삼일 내내 빨지 않은 낡은 바지를 입고 반쯤 먹다 만 빵과 원추형 모양의 컵을 손에 든 채였으니 말이다. 나는 그것들을 식탁에 내려놓지도 못한 채 현행범으로 붙잡힌 심정으로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다! 스승님은 지나가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귀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부분밖에 들리지 않았다. 당시 내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 말씀이었다.

나는 부끄러웠지만 허기를 채우는 일도 중요했기에 빵을 하나 더 집어 들고 자리를 찾아 앉아 스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법문 도중 스승님은 가끔씩 찬물로 샤워하는 것은 해롭지 않으며 그후 몸을 앞뒤로 일광욕시켜 주면 원기를 보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넘쳤다. 스승님은 모든 일을 서슴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처리하셔서 그야말로 ‘창조의 일부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나의 수행이 부족한 탓에 그런 사소한 문제를 친히 가르쳐 주시도록 번거로움을 끼친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다음날 새벽 4시, 내가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아팠던 한국 사저와 그녀의 남편이 내게 다가왔다. 정말 믿어지지 않게도 그 사저는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모든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신실함과 스승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스승님의 힘이 그녀를 낫도록 도운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자신의 회복을 알려 나의 걱정을 털어 주려고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온 그 사저의 사려 깊음에 다시 한 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번 경험으로 나는 이 세상엔 비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이나 행동에서뿐 아니라 내면의 생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혹시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 우리를 속이는 두뇌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동수들이 항상 친구의의 청정함을 유지하여 스승님께 더 이상의 문제와 짐을 드리지 않기를 기도드린다. 스승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았는가!

2002 유럽 선사(禪四)

부다페스트 센터에서 일어난 놀라움의 연속

헝가리 동수들은 2002년 초여름에 헝가리 대평원에 있는 조용하고 자그마한 농장을 매입했다. 이 농장은 교통이 매우 편리한 데다 전기시설이 갖춰져 있고 60미터 깊이의 우물에서 식용수가 끝없이 흘러 나온다. 토양도 매우 비옥해 농사짓기에 안성맞춤인 이곳에는 벽돌집 한 채, 흙벽돌집 한 채, 그리고 목조 건물 몇 채가 있다.

농장을 매입한 후 동수들은 6주간에 걸쳐 수백 명의 동수들이 선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새로운 전기시설과 급수시설을 갖춘 명상센터로 개조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을 받치고 갈대로 3층으로 지붕을 만든 명상홀은 햇빛과 비를 잘 막아 주는 이점이 있다.(이번 선행사에서 입증되었다.) 동수들은 또 본채도 지었는데, 이 건물은 선행사 기간 동안 주방과 식당, 서점으로 사용되었다. 헝가리 동수들은 이 본채를 건축하는 일 외에도 센터로 들어오는 흙길 정리, 잡초 제거, 나중에 수영장으로 쓸 수 있는 대형 물탱크 건축 등 많은 부차적인 일도 진행하였다.

새로운 부다페스트 센터는 2002년 8월 15일부터 4일 간 열리는 유럽 선사(禪四) 장소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동수들은 그때까지 공사 일을 마쳐야 했다. 몇 가지 점에서 볼 때 거의 성사되기 어려운 일처럼 여겨졌지만 스승님의 축복 속에 유럽 전역의 동수들이 힘을 합쳐 마침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농장은 날이 갈수록 점차 명상센터로서의 모습을 갖춰 가기 시작하더니 8월 15일엔 선을 하기에 충분해졌다. 모든 동수들은 오직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이런 기적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럽 20개국의 200명이 넘는 동수들이 참가한 이번 선은 15일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일부 동수들에게 있어선 처음으로 참가한 대규모 선행사였으며, 센터의 평화스런 분위기 덕분에 많은 동수들이 아주 좋은 명상 체험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수행 경지도 상승될 수 있었다.

선의 셋째 날은 선의 절정을 이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스승님께서 이번 선 기간 중에 동수들과 화상회의를 여신 것이다! 몇몇 동수들에게는 스승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기도 했다. 센터가 아직 초고속망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근에 위치한 대학 강당을 빌린 후 동수들 모두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했다. 스승님의 우아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그 아름다운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자 동수들은 모두 무아지경에 빠졌다! 스승님은 이번에 특별히 더 아름다운 모습이셨다! 45분 간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스승님은 동수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해 주셨으며, 모두들 스승님의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



다.

선행사는 8월 18일 정오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많은 동수들이 센터에 며칠간 더 머물렀다. 18일 저녁에는 여유롭고 즐거운 파티를 열어 동수들의 재미있는 공연을 함께 즐겼다.

선행사 준비는 훌륭한 배움의 장

토마스 사형/ 프랑스 (원문 불어)

2002년 7월부터 8월까지, 헝가리 동수들이 새로운 부다페스트 센터를 건축하면서 예정된 8월의 유럽 선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마무리되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선이 시작되기 열흘 전에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다. 센터의 명상홀 건축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며칠 동안 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일하면서 불현듯 따뜻한 것을 마시고 싶어졌다. 그때 갑자

기 팀장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토마스, 좀 쉬고 해요. 차가 준비돼 있어요!” 재빨리 내려가 보니 팀장이 준비한 따뜻한 녹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짧은 만 황홀한 휴식 시간 동안 그 사형은 사랑스런 미소와 밝은 눈빛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일에 집중하고 딴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긍정적인 고집으로 장애를 극복하다

에릭 사형/ 아프리카 베닌 (원문 영어)

스승님과 화상회의가 있는 후, 화상회의 녹화를 담당했던 동수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다. 화상회의가 열리기로 한 대학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행사 전체를 녹화할 만한 공테이프와 배터리가 충분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그 대학교의 비디오 장비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마침 공휴일이라서 그곳엔 담당 기술자도 없었다. 하지만 사형은 화상회의가 전부 녹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이 예상치 못한 장애를 극복하도록 스승님이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시간이 급박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엔 일이 매우 힘들게 보였지만, 사형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결국 한 비디오 회사를 찾아갔다가 마침 그 대학에서 일하고 있던 한 기술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그 동수는 급히 차를 몰고 돌아와 그에게 자문을 구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스승님의 도움과 그의 강한 의지력 덕분에 그 사형은 화상회의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없으리라는 부정적인 사고를 물리칠 수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매우 감명받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면 언제나 이 이야기와, 그 사형의 현명한 생각과 행동을 떠올리자.”

유럽 선사의 큰 수확

라스티슬라브 A. 코바식 동수/ 슬로베니아 (원문 영어)

유럽 선사 기간 동안, 명상 시간은 스승님의 아름다운 불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면 명상홀엔 즉시 스승님의 가피력이 가득해졌다. 전에 나는

오불을 외우려고 할 때마다 첫 번째 명호도 제대로 다 외우지 못하고 두 번째조차 외우지 못했는데, 이번 선에서부터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 스승님, 당신의 자비로운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의 전능한 힘으로 국경을 넘다

헝가리 뉴스그룹 (원문 영어)

한 루마니아 사저는 유럽 선사를 위해 부다페스트로 가던 도중 기적 같은 일을 겪었다. 그녀는 선에 참석하기 위해 승객으로 꼭 찬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루마니아와 헝가리 경계지역에서 멈추더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국경 경비대에 의해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장애 속에서 그 사저는 오불을 외며 스승님께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한동안 되돌아가던 버스 기사가 갑자기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 보기로 결정하곤 다시 차를 돌렸는데, 뜻밖에도 이번엔 거의 바로 통과할 수 있었다!

이 일을 겪은 후 그 루마니아 사저는 스승님의 전능한 힘에 놀라워 하며 스승님께 한없는 감사를 느꼈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영어>

736 인생이라는 환상의 게임

2002. 5. 11. 미국 플로리다 센터 스승님 생신 경축행사

<중국어>

737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하라

2002. 5. 11. 미국 플로리다 센터 스승님 생신 경축행사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한국어로 된 출판물을 주문하시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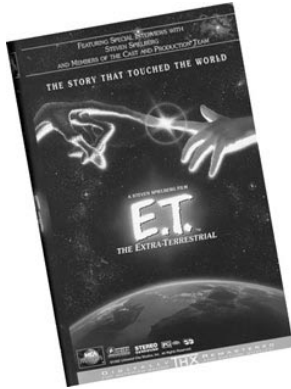
Tel: (031) 772-9250, (02) 577-2158

E-mail: chinghai@unitel.co.kr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G.htm> (한국어)



E.T.를 보고 - 우리의 좋은 이웃을 사랑하자

린청룡 사형/ 포모사 이란

20년 전 흥행을 기록했던 공상 과학 영화 ‘E.T.’가 최근 새로 상영되었다. 세계적인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이 영화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 아니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이 영화는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과 열 살 난 엘리엇이 만나 서로를 인식하고 대화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우정을 키워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외에도 E.T.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사랑과 관심을 함께 모으는 장면들은, 인간과 외계인이 모든 분별을 뛰어넘어 서로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 사회와 냉담하고 이기적인 현대인에게 많은 배울 점을 시사해 준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E.T.는 매우 우습고 이상하게 생겼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따뜻하고 똑똑하며, 엘리엇과 같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 영화 내내 엘리엇과 E.T.는 아름답고 착하고 긍정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마침내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모두들 힘을 합쳐 E.T.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어른들을 따돌린다. 영화는 아이들이 E.T.를 자전거에 태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산꼭대기까지 데려다 주는 부분에서 절정을 이룬다. 위급한 상황이 되자 E.T.는 어쩔 수 없이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순간 아이들이 탄 자전거는 구름 위로 날아올라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게 되는데, 정말 강렬하고 짜릿한 장면이었다! 이 영화는 평화와 사랑의 마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 주고 있다.

스승님은 일전에 외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외계인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으며, 매우 선량하고 똑똑하며 진보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우정과 지혜를 통해 이 지구를 보호하고 문명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외계인을 잡고 고통을 주며 아무 도움도 없이 죽도록 만들고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들의 우주선을 파괴하는데, 나는 이런 일들이 현명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외계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고, 어쨌든 외계인 역시 우리의 이웃이니깐요.” (뉴스잡지 53호 「열린 공간」 ‘외계인은 우리의 좋은 이웃이다’ 중에서. 칭하이 무상사. 1995. 6. 10. 포모사 시후 센터/ 원문 영어)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한밤중에 E.T.가 외로움과



무력함을 느끼면서 밤하늘을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별들을 가리키며, “집에 가고 싶다.”라고 조용히 읊조리는 부분이다. 그 순간 E.T.의 얼굴에 나타난 단호한 표정은 우리

관음법문 수행자들이 천상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 E.T.의 스토리는 허구일 뿐이지만, 다른 세계에서 온 진짜 외계인인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그보다 더 가슴 저미는 삶을 연기해 나가고 있다. 살아 계신 큰스승의 도움과 안내로 천상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영화를 말이다!



수행일와

미세한 사랑의 공부

중국 대륙 동수

어느 날 나는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기차표를 산 후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아이를 안은 한 젊은 여자가 내게 다가와 어디까지 가느냐고 묻더니 행선지가 같다는 것을 알고는 기뻐하며 같이 동행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입문을 하기 전에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려 해도 그들 모두가 나를 믿어 주진 않았는데, 입문하고 나서는 낯선 사람조차 나를 신뢰하게 되어 이런 일이 부지기수였다.

그녀는 내가 승낙하자 배웅 나온 친정 어머니에게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도 완전히 마음을 놓은 듯 “잘 좀 부탁해요!” 하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그녀는 짐을 챙겨 기차에 오른 후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

다. 얘기를 나누던 중 나는 몇 번이나 내 가방에 든 생수 병을 그녀에게 주려고 생각했지만, 가방이 높은 짐칸에 올려져 있어서 먼저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꺼내 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이 있다며 괜찮다고 사양했다. 그녀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나 자신이 매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가 아이를 안고 기차의 맞은편 끝에서 끓인 물을 받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물이 너무 뜨거워서 아이는 물을 먹으려다 큰소리로 울어댔다. 오래도록 기다려도 물이 식지 않자 그녀는 마침내 가방에서 작은 오이를 꺼내 아이에게 주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녀가 단순히 예의상 물을 거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을 들어 내려 준 나는 그녀가 아이를 안고 내리자 그녀의 남편이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 주었다.

당시에는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며 최소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나는 아직 수행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아이 엄마는 길보기에도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차 여행을 할 때는 보통 이런저런 과자들을 수없이 먹는 데 비해 그녀는 아이를 위해 오이를 준비할 정도였다. 아마 스승님이 나와 같은 입장이셨다면, 분명히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사서 아이를 달래셨을 것이다. 반면 나는 언뜻 보기에는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아직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한 때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내겐 아직도 배워야 할 공부가 너무도 많은 것 같다!

수십 년에 걸친 구도 여정기

천포린 사형과의 단독 인터뷰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취재

여든이 가까운 천 사형은 입문한 지 십여 년이 되었다. 그는 입문하기 전 수십 년 동안 고생고생하며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승님을 따라 수행한 후로는 지혜가 성장했을 뿐 아니라 풍성한 수행의 결실도 얻을 수 있었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다

1947년 천 사형은 일관도(석가모니, 공자, 노자, 그리고 기타 스승들의 지혜를 결합시킨 포모사 최대 종교 중 하나)에 들어가 ‘간사’와 ‘점전사(點傳師)’를 맡았으며 또한 곤륜파(도교의 한 종파)의 류페이충 스승을 따라 26년 간 신통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스승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지만 아직 관음법문과 인연이 닿을 때가 아니었는지 당시엔 회의적이었다.

18년 전 노자가 내면의 비전으로 나타나 말하길,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바다에 뛰어들라’고 일렀다. 그러나 그는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여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어차피 이 육신은 쓸모 없는 것이니 그런 방법으로 정말 진리를 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 몸을 바치자.’ 그래서 그는 타이베이 진산(金山)의 해변가로 가서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많은 피를 흘려 회복하는 데도 한 달이 넘게 걸렸

다. 그후 노자의 화신이 다시 꿈에 나타나 만약 ‘고향’으로 돌

아가고 싶다면 타이베이로 가서

‘맑은 물’을 찾아 씻어야 하며 사진도 준비해 가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그때도 노자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 결국 몇 년이 지나 관음법문에 입문하고 나서야 노자가 말한 ‘바다에 뛰어들라’, ‘맑은 물로 씻으라’는 말이 칭하이 무상사(‘칭하이’는 중국어로 ‘맑은 바다’를 뜻한다)에게 입문해야 세세생생 축적된 업장을 씻을 수 있다는 뜻이었음을 이해했다. 그 암시들은 물질세계의 바다나 깨끗한 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준비하라고 한 사진은 입문 신청을 위한 것이었다. 천 사형은 당시 수년간 일관도를 수행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노자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의 법문

그 꿈을 꾸지 4년이 흐른 뒤, 관음법문 수행자인 차이 사저가 천 사형에게 자신은 살아 있는 참스승을 따르고 있는데, 사형은 수행 근기가 뛰어나니 그 스승을 따라 수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미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후 1988년, 차이 사저가 했던 말이 생각난 사형이 사저에게 전화를 했더니 차이 사저는 다시 한 번 관음법문을 권했다. 여전히 망설이던 사형은 패를 던져 노자의 계시를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세 번의 점을 쳤는데 결과는 모두 긍정적이었다. 이는 노자가 입문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는 매우 기뻐했다. 마침내 1990년, 그의 나이 66세에 입문을 하게 되었다. 입문하기 전 심사에서 전에 무슨 수행을 했었는지 묻자 그는 “불교, 도교, 유교.”라고 답했다. 스승님은 그의 구도를 향한 신실함을 보시곤 그가 이미 입문 연령을 넘었는데도 예외적으로 입문시켜 주셨다. 입문한 후 그는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계속 점을 쳤는데, 결과는 언제나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천 사형은 이전에 수년간 신통을 수행했기 때문에 관음법문을 수행하던 초기에는 명상할 때마다 매우 힘들었다. 많은 무형의 중생들이 괴롭혔기 때문이다. 하루는 명상하고 있는데 전에 따랐던 스승이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말했다. “스승님! 저는 지금 청하이 무상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옳은 결정을 해서 수행이 높아지면 당신을 더 높은 등급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행이 잘못됐다면 당신을 여전히 나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스승은 이 말을 듣고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다. 천 사형의 말에 따르면, 그 스승은 ‘회춘’하는 법문을 했는데, 그 법문은 육신을 더 젊게 만들 순 있지만 해탈에 이르게 하는 궁극의 법문은 아니라

고 했다.

8년 전, 한번은 그의 병이 위중해 많은 동수들이 그를 문병하러 갔다. 당시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스승님께 간청했다. “스승님! 전 이미 너무 늙었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화신 스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너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나중에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천 사형은 회복 후 스승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되었다.

나중에 천 사형은 시력이 점점 약해져 눈 수술도 하게 되었는데, 수술한 후에도 원래 시력의 반밖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후로는 보통 사람들이 보는 물질세계 이외에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까지 보게 되었다.

동수들이 그에게 수행 진보의 비결에 대해 물을 때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한다. “스승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행에 관한 모든 비법들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승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따르고 부지런히 명상하며 선에 자주 참석하기만 한다면 경지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한번은 그가 화련에 있을 때 한 동수 부부가 입문하지 않은 그들의 삼촌과 함께 그를 찾아왔다. 그 삼촌은 “제 아들은 비만인데 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천 사형의 조언을 구했다. 이에 천 사형은 말했다. “알 만하군요! 당신의 아들은 부처의 아들로 환생했는데 당신이 고기를 먹이니 안 아플 리가 없지요. 당신들 두 사람은 스승님께 입문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후 그 두 부자는 정말 관음법문에 입문하였다.

천 사형은 전에 건축과 목공 일을 했었다. 또한 열렬한 독서광이자 뛰어난 서예가여서 그의 집 벽에는 다양한 서체로 쓴 많은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다. 그는 시와 운문을 짓는 데도 재능이 있어서 종종 수행의 깨달음을 글로 남겨 벽에 걸어 두거나 서책에 모아 두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내면의 스승님이 나타나 글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문자에 빠지

고 문자에 의지하게 될 뿐 진정한 해탈은 이룰 수 없으니 글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 즉시 글쓰기를 그만두었다.

플로리다 선

2001년 크리스마스 전에 플로리다에서 선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천 사형은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을 뵈 기회를 잡기 위해 선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권도 만기가 되었고 미국 비자도 없는 상태에서 선 참가 신청 마감에 임박해 왔다. 다행히 스승님의 축복으로 하루 만에 필요한 모든 구비 서류를 갖추고 비자까지 받아 순조롭게 여행할 수 있었으니, 스승님의 힘이 다시 한 번 기적을 보여 주신 것이었다!

선이 끝난 후 스승님께서 주방에서 동수들과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천 사형은 이때 그의 입문 전 구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생겼다. 스승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동수들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자상하게 통역까지 해주셨다. 스승님은 천 사형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일반 사람도 어떤 수행법을 수십 년 간 하다가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법문을 수행하길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 더구나 천 사형처럼 일관도에서 간사나 '점전사'와 같이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이 같은 결정은 구도를 위해 이미 부와 명예를 완전히 버렸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신통력 수행을 포기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인데 바꾸라면 바꾸고 포기

하라면 포기하는 천 사형의 자세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이셨다. 더욱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던 정신은 특히나 탄복할 일이었다.

수행을 통한 깨달음

마지막으로 천 사형은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다음은 그가 강조한 내용이다. “관광을 할 때는 등을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명상이 잘되면 육체의 오행(五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기맥이 잘 통하게 된다. 관음을 할 때는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자세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가능하면 주저앉아 명상하지 않도록 한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명상을 매일 성실히 하거나 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마치 불로장생하는 신선처럼 혈색도 좋아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천 사형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천지를 창조한 대도(大道)는 형체가 없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이 공(空)이다. 부부간의 사랑도 공(空)이며, 재산도, 자식도, 권력도 공 아닌 것이 없다. 입문하기 전 나는 수십 년 동안 고생고생하여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으나, 스승님을 따라 수행한 후로는 지혜가 성장했을 뿐 아니라 풍성한 수행의 결실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아 있는 깨달은 스승의 보배로움을 알지 못하고 천 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이 기회를 놓치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청소년과 수행생활



우주 대학당

청하이 무상사 (청소년에게 하신 말씀)/ 1991. 6. 16.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176

이 세상에서 인간은 가장 소중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린 나이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점점 총명해지고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새를 학교에 둔다면 새가 뭐라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 아니요.) 그러나 인간이라도 마땅히 인간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물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우나 닭싸움 같은 걸 보고 좋아하면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썸이죠. 잠을 많이 잘 때는 무엇과 같지요? (어린이들: 돼지요.) 많이 먹을 때는 무엇과 같나요? (어린이들: 돼지요.) 또 돼제인가요? (대중 웃음) 돼지가 그렇게 나쁜가요? 돼지는 이 두 가지 습성들을 갖고 있지요.

(대중 웃음) 내 말은, 우리 인간도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동물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눈, 코, 귀, 입이 있지요. 어떤 동물은 손도 있고, 어떤 동물은 손은 없어도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월한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습성들을 통제해 그것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 있지요. 예를 들어 어찌다가 많이 먹었을 때, 우리는 반성하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 배가 부르면 됐지! 너무 많이 먹



청소년과 수행생활

으면 졸려서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할 거야. 선생님이 가르칠 때 코를 골기 시작할걸.”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경고하고는 좀 적게 먹게 될 것입니다. 또 등교할 시간이 되었지만 아침을 먹지 못했다면, “지금은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야. 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하니, 먹는 건 시간 날 때 먹으면 돼.”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만일 돼지가 학교에 가야 한다면, 학교 갈 시간이 되어도 실컷 먹고 나서야 학교에 갈 마음이 들 겁니다. 음식을 옆으로 치우더라도 달려들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의 습성을 가지고 있긴 해도 지혜와 의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의 다른 좋은 자질들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똑똑한 동물이라도 우리 사람처럼 많은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지능과 재능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총명하고, 어떤 사람은 둔합니다. 이런 차이는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타고난 자질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총명한 반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공부해야 겨우 따라갈 수 있고, 또 학교에 가도 둔한 건 여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보다 조금 영리해질 수도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거의 차이를 알아채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하고 난 후에는 무엇이든 아주 빨리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학생들 대다수가 채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짧게 명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건 매우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만 하더라도 많은 이점을 얻어 더 지능이 높아지고 더욱더 총명하게 변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높은 경지에서 왔기 때문에 무엇이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다양한 자료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된다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우주의 온갖 자료로 꽉 채워진 컴퓨터와

비슷합니다. 이런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를 조종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그걸 조종할 정확한 ‘버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으며, 더욱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한 후에는 우리 내면의 지혜가 자동적으로 조정되어 필요한 게 있으면 내면의 주인이 그에 맞는 버튼을 대신 눌러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신기한 게 아녜요!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본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버튼을 누르니 나타나는 것이죠. 신기할 게 없어요!

때로는 딱 맞는 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는데, 그건 아직 그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기도해서 도움을 청하지요. 신은 그것을 알고 있고 우리 대신 정확한 버튼을 눌러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망이든 실현된다면 그건 정확한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행이 높아진 후에는 더 이상 신에게 뭔가를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이 원하는 건 뭐든지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명상하고 채식하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이 수행인 셈입니다. 더 많이 수행할수록 자신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며, 내면의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할지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어떤 대수행자들이 히말라야에서 어떤 것을 변화시켰다든가, 어떤 신기한 일을 했다든가 하는 일들을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수행을 했기 때문이지 어떤 신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안다면 말이에요.

학교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는 ‘가

청소년과 수행생활

나다'도 읽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신기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배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았다면 '가나다'가 아무리 쉬어도 읽을 수 없을 겁니다. 수행자는 좀 다른 학교, 대학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세속적인 지식은 대학에서 끝납니다.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고 대학이 고등학교보다 높지만, 대학에 가면 그걸로 끝이지요. 만약 우리가 더 위대한 것을 배우고 싶다면, 우주의 신비로운 일들을 알고 싶다면 수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지혜를 더 높이고 싶으면 부처의 학교, 신의 학교에 가야 합니다. 좀 다른 종류의 학교지요. 그러나 이 학교는 일반적인 학교와는 달리 별로 조직적이지도 않고 지필 고사도 없고 수업료도 없습니다. 또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것을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물론 우리도 일반 학교처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러한 학교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미 성숙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아이들'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런 학교가 더 자유롭다고는 해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매일 적어도 2시간 반을 명상하고, 엄격하게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일반 학교보다 엄격하지요. 또 지필 고사는 없지만 여전히 시험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여쭙 보면 알 겁니다. 그들은 많은 시험을 거쳤고 때로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등급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으니 상관없지요! 여기에는 시험 마감일이 없습니다. 언제, 몇 번이나 시험을 봤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내심과 신실함만 있다면 계속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학문의 일종인 셈인데, 초월적인 학문이지요.

여기에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나는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대학의 학문보다 더 고등한 것으로 세속적인 학문에다 비할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학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대학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거기서도 많은 과목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게다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내면으로 가르치므로 우리 학교는 초월 학교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성이나 재산을 위해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이 되기 위해, 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등등과 같은 명리심을 위해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신이 안배한 대로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모든 것을 돌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책을 읽고 훌륭한 도덕심을 길러라

나는 여러분만한 나이의 학생이었을 때 책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만 볼 게 아니라 읽을 만한 책들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도덕에 대한 경전이나 인생 철학 등과 같은 책들도 매우 훌륭하고 재미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나쁜 행동도 하지 않게 되고 여가 시간도 많지 않아 엉뚱한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리니까 괜찮습니다. 좀더 자라면 반드시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과학에 관한 책, 의학에 대한 것, 신학에 대한 것 등등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면 무엇이든 읽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배운다면 다른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초적인 도덕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만일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먼저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청소년과 수행생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수행을 하고 도덕적이며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이도 더 들었고 나에게 배운 지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먼저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다 큰 다음에 묻지 않도록 하세요. 그때는 너무 늦을 거예요. 어떤 동수는 좀 나이가 들어서 나에게 배우러 오기도 하는데 가르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어울락 속담에, ‘어린 대나무는 구부리기 쉽지만 다 자란 대나무는 마음대로 구부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끔 나는 그게 싫어서, “난 아직 어린데, 왜 이렇게 엄하게 대하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크고 나서는 부모님께 매우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옳은 일들은 부모님이 엄격하게 길러 주신 덕분이며,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내 탓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리지만 금방 어른이 될 겁니다. 나도 여러분같이 작았던 게 어제 같은데 금방 이렇게 자랐습니다. (스승님 웃음) 흰머리도 몇 가닥 생겼어요.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 아직 학생일 때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책도 찾아봐야 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는 볼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거짓말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책을 읽는다고 해도 책에 열중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재정 문제로 바쁘고 매일매일 문제가 있어서 집중해서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착한 아이가 아니라면, 어른이 된 후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쁜 어린이는 나쁜 어른이 되고, 그러면 가정과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국가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건전하고 안정되려면 여러분, 미래의 기둥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품성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이나 이사한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어린이들: 예.)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맹자의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이

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님이 있고 좋은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잘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책은 뭐든지 읽으세요. 그런 책을 모르겠으면 부모님께 물어보고 읽을 만한 좋은 책을 찾아 달라고 하세요. 시간이 날 때도 지나치게 놀지 마세요. 재미있게 놀고, 운동을 해서 몸을 튼튼히 하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뜻 있고 도덕적인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런 기초적인 도덕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커선 너무 늦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도덕적인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책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내 맘대로 남의 재산을 훔쳐선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자라서 한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적이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난 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어울락에 있을 때 한 동안 친구 집에 있게 되었는데, 그는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나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배가 매우 고팠지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쟁 때라서 집에서는 돈을 보내 올 수 없었고 나는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내 친구 가족들의 음식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맛있게 보이고 냄새도 좋았어요. 당시 나는 며칠 동안 굶어서 배가 고팠고 또 그의 가족들도 집에 없었지만, 함부로 그 음식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상황을 말하지 않은 채 일을 구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렸을 때 훈련이 잘되어 있었으니까요.

내 친구의 가족들은 나를 매우 신뢰해서 외출할 때도 안심하고 나에게 집을 맡겼습니다. 나 역시 그들의 재산을 건드리거나 음식을 훔쳐먹지도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지요. 내 부모님은 그런 상황이 닥쳐야만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때는 너무 늦지요. 여러분이 중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이, 어렸을 때 배워야 나중에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종 단어를 쓰는 법을 배우고 나면 중국어를 아주 잘 할 수 있게 되지요. 또 한번은 파리에 있었을 때 돈이

청소년과 수행생활

별로 없었습니다. 유학생이었으니까요! 어느 곳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이사할 돈이 필요했지만 그때에는 그만큼 많은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파리는 물가가 아주 비쌉니다! 집세도 타이베이보다 훨씬 비싸지요. 그러니 나와 같은 유학생이 갑자기 이사를 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숙식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야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에 공부하고 낮에 일을 하는 건 상관없었지요. 일을 구하러 다녔지만 찾지 못한 채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다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나를 ‘거리의 소녀’로 착각하고는 많은 돈을 보여 주며 집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나는 “싫다.”고 말했지요. 그 남자는 처음엔 200달러를 보여줬는데, 나중에 400달러로 올렸어요. 내가 다시 “싫어요.”라고 말하자 그는 600달러로 올렸지요. 그래서 나는 “한마디만 더 하면 경찰을 부르겠어요!”라고 경고했어요. 그는 겁을 먹고는 내가 그런 종류의 여자가 아닌 줄 깨닫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당시 600달러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왜 내가 돈을 위해 나 자신의 명예나 도덕성을 잊을 수 없었을까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 자연스레 습관이 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명예나 재산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장자』, 『도덕경』, 불경 등등 도덕적인 책을 읽기 좋아했어요. 또 『춘추(春秋)』, 『봉신방(封神榜)』, 『삼국지(三國誌)』, 『동주열국지(東周列國誌)』 같은 책이나 『만화루(萬花樓)』, 『정교금(程咬金)』 같은 이야기에도 도덕적인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서 착한 사람들은 결국 복을 받고 어떤 재난을 피하게 되며, 갑자기 귀인이 나타나 보호하거나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조만간에 들통이 나고 결국은 벌을 받지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도덕심을 단단히 확립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기초적인 도덕심을

기른다면 나중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닥치자마자 바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흥계로 명예나 재산을 탐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자기 몸을 팔거나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더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인 측면을 돌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만 읽어서 될 것도 아니고, 외국어나 수학만 안다고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조금 똑똑하게 만들고, 사업을 하는 방법이나 좋은 직업을 찾도록 해주긴 하지만, 도덕심을 길러 주거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 존엄성을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도덕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고 좋은 책들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 무의미한 게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귀중한 시간을 많이 낭비할 테니까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는 무엇을 배우고 보든 모두 기억하고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흡수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책이나 폭력적인 영화는 보지 말고, 영화나 책을 볼 때는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훌륭한 정신을 키우고 건전한 도덕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습관을 길러 나쁜 책이나 영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금지시켜 항의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직 어려도 여러분 역시 인간으로서 나처럼 눈, 코, 귀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렸을 때 좋은 책들을 읽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자신을 훈련시키기 시작해 미래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큰 후에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사귀고 연애 문제로 골치 아플 테니까요. 또 결혼한 후에는 가정에 대한 책임으로 신경이 쓰일 것이고, 직장에 가서는 돈 버는 일로 신경 쓸 겁니다. 그러니 언제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



청소년과 수행생활

로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책임도 없으니까요. 부모님이 입을 옷을 사 주고 요리도 해주시며 아주 잘 보살펴 주시니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지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건전한 도덕 관념을 기르고 굳건히 다지십시오. 그러면 어른이 된 후 훌륭한 시민,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될 것이며 모든 면에서 훌륭할 것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훈련을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자신을 닦겠습니까? 언제 집안을 다스리고, 언제 나라 다스리는 법과 세상을 평안케 하는 일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은 앞서간 사람들의 모범을 배우고 고대의 스승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훌륭한 경전을 통해 배워야 하며, 그런 훌륭한 도덕과 계율을 배워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골라뽑은 수행문답



청소년 수행자들을 길러내는 좋은 방법

청하이 무상사/ 2002. 8. 11. 인터넷 화상회의 (원문 영어)

질문: 수행하는 아이들에 대해서인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도와야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물질적인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승님: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책이나 사람들, 자연의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질문: 만약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오염시키지 않

는다면 아이들이 저절로 물질적인 집착을 놓게 되나요, 아니면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야 하나요?

스승님: 훈련시킬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학교에 가거나 밖에 나가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도 배경이 훌륭하다면, 최소한 삶과 친구들이 가져다 줄 압박감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좌절과 압박, 외로움을 겪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주어진 현실에

청소년과 수행생활

서 오는 슬픔과 불행을 이해하고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강해질 것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스승님. (대중 박수)

스승님: 천만요.

질문: 많은 동수들에게 아이들이 있고, 반 입문해 수행하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것은 항상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수행 지침은 매우 분명하지만,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기에 아주 어렵

습니다. 스승님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예, 내 조언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이 세상에는 100% 절대적인 것이란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업장, 사회, 집단 의식, 그리고 신의 뜻, 기후, 우리가 사는 나라와 그 전통, 친구들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처럼 수행하고 성인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은 아주 행운아들입니다.

청소년을 황금시대로 선도하자

청하이 무상사/ 1993. 3. 21. 호주 브리즈번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337

질문: 요즈음 세대 10대 청소년 중에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좋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인가요?

스승님: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부모가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대부분은 훌륭합니다. 아마도 요즘 청소년들이 도덕적으로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서 부모가 지상에서 신을 대신해 자신들을 기르고 교육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 겁니다.

만약 자녀가 신을 깨닫고자 하는데 부모가 저지하거나 막는다면 그때는 그들을 그리 좋은 부모라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좋지 않은’ 부모란 없습니다. 오늘날 10대들의 색다른 사고방식은 그들이 나쁜 뉴스나 폭력적인 영화, 바람직하지 않은 통신 수단, 나쁜 친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을 지금처럼 만든 거지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다시 황금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비폭력과 사랑, 깨달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다시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청소년들이 진리의 길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진리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사랑을 발견하고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더 많이 깨닫는다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보다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주의산만을 극복하는 문제

칭하이 무상사/ 1999. 5. 30. 핀란드 헬싱키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63

질문: 저는 학생인데,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고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관음법문을 하면 될까요? 지금은 공부도 할 수 없고 아주 괴롭습니다. 칭하이 스승님만이 저와 다른 친구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스승님: 10대 성장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도 얼마 동안 명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음법문을 하고 싶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싶지 않다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간단한 명상법을 수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영화는 많이 보지 말고, 아름다운 여자나 멋진 남자를 찾아 너무 두리번거리지 않도록 하세요.

학업을 마친 뒤에는 당연히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공부시킨다고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과 보호자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세요. 인생에 있어 학창 시절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을 마치는 것이며 그 외 것들은 모두 나중에 자연스레 올 것이라고 다 집하고, 학업을 마치기로 굳게 결심하십시오.



수행과 생활

청소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매튜 서피스 사형/ 호주 시드니 (원문 영어)

오늘날 사회는 온갖 유혹과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있어 성장기는 온갖 도전이 기다리게 된다. 부모에게 있어서도 청소년기를 겪는 반항적인 자녀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큰 도전이 된다.

많은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약물 복용은 흔한 일이

되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에 속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약물을 복용한다. 일부 청소년들은 잘못된 생각이나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혹은 의식의 상태가 변화하는 감각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하기도 하며 때로는 가족, 친구, 삶의 변화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한 삶의 괴로움을

청소년과 수행생활

잇으려고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위의 모든 이유들 때문에 약물을 복용했었다. 당시 나는 열여섯 살이었는데 대부분의 성인보다도 술을 많이 마실 정도였으니, 그 외 내가 섭취한 온갖 독극품에 대해선 말할 필요도 없다.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하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다양한 방법들로 대처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이다. 나의 부모님은 매우 책임감 있고 성숙된 태도로 대응하셨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은 내게 식사 시간의 맥주 한 두 잔은 허락하셨지만 그 외에 집안에서 과음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히셨고, 또한 동시에 어떤 형태의 마약도 허용치 않는다는 것도 못박으셨지만 내가 집을 벗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가끔은 취한 나를 붙잡아 담담히 당신들의 감정을 토로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를 그대로 두셨다.

나는 부모님의 그런 태도가 매우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현재의 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부모님의 그런 인내심 있는 인도 속에서 나는 나의 행동과 감정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수년 동안 겪어 왔던 고통들은 나를 관음법문으로 이끌었다. 나의 영적 여정은 마약을 사

용하던 시절에 시작되었다. 마약을 통해서 의식의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명상을 배우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리고선 해가 지날수록 내 인생에서 마약 대신 명상이 서서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때는 호흡 수련을 하기도 했지만, 이 방법은 죽음과 함께 끝나 버린다는 것을 깨닫고는 방편법을 배우고 입문을 하게 되었다.

나 자신의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청소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만약 마약이나 술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일찌감치 수행의 길을 선택할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선택에 대해 나는 털끝만큼의 후회도 없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드리는 충언으로는, 만약에 입문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녀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또한 자녀들로부터 얼마간 거리를 유지해 그들이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적당한 기회를 봐서 자신의 느낌을 자녀에게 말하고, 만약 자연스런 기회가 오지 않거나 자녀들이 대화하길 거부하면 그냥 순리대로 따르면 된다. 자녀들은 스스로 준비되면 어디서 답을 구해야 할지 알 테니까 말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보내는 편지

루루미 사형/ 포모사 타이베이



나는 이제 막 청소년기를 벗어난 사회 초년생입니다. 성장기를 겪으며 얻은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들을 부모님 되시는 여러 동수님들과 나누어 요즘 청소년들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

도록 이 글을 씁니다.

청소년기의 감정

또래들과의 우정, 가족적인 유대, 이성 친구와의 사랑 중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중시되는 것은 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게 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또래 친구들의 반응과 인정이야말로 자신감과 힘을 키우는 가장 큰 원천이 되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자신이 다 자랐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늦게 들어올 자유를 원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관리하는 더 많은 권리를 갖고자 하지요. 또 친구에 대한 의리가 강해서 친구를 실망시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그들을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나는 어머니가 너무 참견한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때는 어머니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이 시기에 가정을 정신적 안식처로 만들어 주시기를 권합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나무라지 말고 최대한 빨리 치유되도록 도와주는 게 낫습니다. 상처가 치유된 뒤 다시 나가서 상처를 입는다 해도 그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배움의 과정이므로, 부모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옆에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한번은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 안 좋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어머니는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왔냐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대신 내가 저녁을 먹었는지 물으시며 서둘러 밥을 차려 주셨습니다. 나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서 밥을 먹으며 다시는 반항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대의 사랑에 관해서는, 강제적으로 이성 교제를 금지시키는 것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친구로서 잘 지

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성 관계에 대해 건전하고 올바른 개념을 세워 주고 그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해시키면 자녀들의 인격 발전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들은 경험이 부족한 탓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이성 관계를 키워 간다면 '나무토막' 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학업

대부분의 부모님들에게 있어 자녀들의 학업은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날은 학력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좋은 학력을 갖고 있으면 직장을 구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지요.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건대 나는 한번도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인연이 있었는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와 대학도 쉽게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 입학시험의 만점은 600점이었는데 나의 첫 모의고사 성적은 180점, 두 번째 모의고사에선 190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험에서 280이 되더니 마침내 300점을 얻어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타이베이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기에 딱 맞았습니다. 당시 나의 수행은 아직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그때 집을 떠나 먼 곳으로 대학을 갔다면 수행을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타이베이에 남아 있게 되자 단체명상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수업 시간을 조절해 센터 일에 참여할 기회도 많이 갖게 되어 구도심을 더욱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개인적으로는 공부는 각자의 인연과 타고난 능력과 연관이 있으므로 순리대로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게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지금 사회에서는 살기가 어렵고 육체적 노동으

청소년과 수행생활

로 생계를 꾸려 가야 한다는 것은 알려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조만간에 자신의 미래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분명히 알고 생각하도록 부모님들이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은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행

10대 시절, 나는 나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완전 채식을 하는 데다 매일 2시간 반 명상해야 했고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없었으므로 우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날마다 수행과 수행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종종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저녁 8시에 친구와 외출하여 다음날 아침 8시에 들어와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고, 나 자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이 행복을 찾고자 갈망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깥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참된 행복은 바로 내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소년 동수들이 아주 어릴 때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수행은 어린 시절부터 몸에 익은 일상 생활에 지나지 않을 뿐 ‘해탈’이라는 말이 굉장히 요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혹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대해 아직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조건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금지시킨다면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있지만, 과보호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가르침은 부모님이 몸소 보이는 말없는 모범입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과 은총으로 충만한 사랑만이 진정으로 자녀들의 가슴 깊은 곳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암울

한 시절에도 관음 가족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관음법문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있으리라곤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맺음말

왜 이 편지를 청소년이 아닌 부모님들께 썼을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많고, 스스로 탐색하고 경험하며 답을 얻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은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고 충고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나를 돌아보아도 그와 같아서, 나는 오직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0대의 생각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고, 또 이 때문에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인가 나는 문득 이 모든 것을 반성하다가 어머니가 나를 끝없이 보살피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으며, 내가 밖에서 ‘길’과 ‘행복’을 찾는 동안 스승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늘 나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뒤 내 마음은 부드럽게 누그러지고, 그때부터 ‘반항’이라는 두 글자와는 완전히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자녀들을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대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무아의 사랑이야말로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응석을 받아 주는 것도, 구속당하는 것도 원치 않으며, 대신 옳고 그름과 선악, 대인관계에서의 올바르게 건전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때때로 비뚤어진 행동을 하거나 올바른 길을 모른 척하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청소년’인 것입니다.

나의 이 작은 견해가 부족하나마 청소년과 부모님께 도움이 되기를 신실하게 바라고, 관음 가족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 위대하고 진실한 수행의 길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걷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영성으로 청소년을 인도하라

칭하이 무상사/ 1991. 1. 27. 파나마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145

우리가 조금 성장하여 십대가 되면 온갖 종류의 압박감을 받습니다. 학업, 교우들과의 경쟁, 이성 친구, 동성 친구, 그리고 가족들에게서도 압박감을 받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압박감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혹은 조금만 내비쳐도 우리는 가정의 경제 사정이나 부모님의 관계 등을 짐작할 수 있지요.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 부담을 주고, 때로는 아이들을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아이들은 각성제나 마약을 하고 자살하기도 하며, 그저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하거나 온갖 나쁜 친구들을 사귀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이 잃어버렸거나 찾을 수 없는 행복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때로는 아이들이 받는 압박감이 어른들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느 정도 단련되어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다룰 만큼 강인하지만, 아이들은 비교적 예민하고, 순진하며,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표현할지도 몰라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폐쇄적으로 됩니다. 그렇기에 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소셜 속에 묘사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과 사회적 압력, 주위환경과 가정환경 때문이기도 합니

다. 많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지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 훌륭한 가정을 갖고 집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랑받는 아이들은 운이 좋은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부모와 함께 진리를 수행하는 아이들이라면 훨씬 좋겠지요. 의지할 수 있는 내면의 위안처가 있고 그로부터 성장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얻어 이 세상의 풍파를 헤쳐 나갈 수 있으니까요.

때로 우리는 부모님과 가족에게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삶을 헤쳐 나갈 충분한 내면의 힘을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에게 말 못 할 고민들도 있고 또한 부모에게 그들 나름의 문제와 압박감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아이들의 부담을 더 많이 나누려 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완벽히 해낼 수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아이들이 관음법문을 배우고 채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나와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쁜 친구들을 찾아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 친구, 연인, 선생님 등 무엇이든 되어 줄 수 있으며, 그럼 그들은 청소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성장하고 나면 그들 혼자 해낼 수 있겠지요.



과학과 영성을 잇는 가교

파멜라 밀러 사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원문 영어)

관음 수행자와 많은 종교인들에게 있어 ‘삼매에 든다’거나 ‘천국과 하나 됨’ ‘만물동일체(萬物同一體)’ 등의 신기한 체험들은 그다지 낯설지 않다. 그러나 과학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종교 및 영적 수행에 관련된 현상들은 여전히 설명 불가한 난제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많은 첨단 기술들을 통해 이러한 체험들 속에 숨겨진 진리를 찾는 과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과학자들은 결국 종교가 깊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정 내렸다. ‘신경신학(神經神學)’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분야의 학문에서는 진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종교적이고 영적인 체험 당시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를 추적한다. 이 매력적인 새로운 논제에 대해 2001년 5월 7일 발행된 뉴스위크 지가 ‘종교와 대뇌’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로 소개했다. 작가인 케네스 L. 우드워드(Kenneth L. Woodward)는 수많은 서적과 의학 전문 연구가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를 인용해 영적·종교적 체험이 두뇌에 특정한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 증거를 제공했다.

이 ‘신경신학자’ 들은 취합한 자료들을 통해 두뇌가 영적인 정보를 송신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깊은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과, 영적 체험이 적거나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 간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그들은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과 인류의 의식 전반에 관해 밝히고, 우리의 육체 혹은 정신 속에 어떤 사람들을 보다 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성향이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뉴스위크의 기사는 유사한 결과를 낸 다른 많은 연구를 실례로 인용했는데, 티베트 라마승 그룹과 프란체스코회의 수녀들, 그리고 페루 마추피추에서 예수가 나타난 것을 목격한 한 여성에 대한 실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사에 언급된 연구자인 데이비드 울프(David Wulff)는 “영적 체험은 문화와 시대, 신앙을 초월하는데, 이는 두뇌의 반사 구조와 활동 과정에 공통적인 핵심 요소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이미지를 스펙트럼시키는 기술을 통해 반복적인 실험 결과를 끌어내게 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동안 두뇌의 특정 영역에서 공통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를테면, 대뇌의 전두엽은 명상에 깊이 몰입할 때 활성화되고, 대뇌 측두

엽은 기쁨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적인 방면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으며, 후두엽은 십자가나 성상 같은 이미지를 해석하는데, 이 세 가지 두엽이 접합된 곳에서 언어를 관장하고 연상 작용이 형성된다. 또한 두정엽(정수리 부분)이 완전히 고요해지면 ‘만물동일체’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술된 발견은 과학자들의 특별한 흥미를 끌었다. 두뇌의 뒤쪽 위로 향한 두정엽 안에는 ‘방위·연상부’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실험 대상자가 ‘만물과 하나 되는’ 것을 깊이 체험할 때 이 부분은 완전히 까맣게 나타난다. 두뇌의 이 부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아를 감지하는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왼쪽의 ‘방위부’는 물질적으로 제한된 육신의 경계를 개편화시키는 것을 관장하는 반면, 우측의 ‘연상부’는 육신이 존재하는 물질적 공간에 대한 감각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신경신학자인 앤드류 뉴버그(Andrew Newberg)는 그의 저서 『신은 왜 떠나지 않는가(Why God Won't Go Away)』에서 그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명상에 집중하는 동안 이 ‘방위·연상부’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면 대뇌는 ‘자아’와 ‘비자아’를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주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다른 학설에 의하면, 측두엽에 전류 활동을 활성화시키면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비전을 보게 된다고 한다. 이 관점에서는 잔다르크, 도스토예프스키, 프로스트, 성 바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가졌던 위대한 영적 감응은 ‘대뇌의 일시적 간질’, 즉 측두엽에서 전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며 일어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은 언어와 연상 작용을 관장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미세한 전자 폭풍이 일어나면 신을 본다든가 하는 해독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곳의 왼쪽 영역은 자아를 인지하므로, 만약 오른쪽이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왼쪽이 자극을 받는다면 두뇌는 ‘자아가 무한히 늘어난다’거나 ‘신과 하나 됨’으로 해석한다. 이를 통해 잔다르크가 ‘신의 계시’를 듣고 성 바울이 비전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합리적으로 도식화시키려는 환원(還元)주의 과학과 흡사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뇌신경의 반응만으로는 그런 영적 체험들이 두뇌에 의한 ‘상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뉴버그 또한 “신경 활동의 변화가 영적 체험과 관련이 있는지, 즉 두뇌가 그러한 경험을 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정말 영성을 지각하는 것인지 규명할 길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든, 어쨌든 이는 이미 생명현상의 가장 수수께끼인 인간 의식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 큰 경지를 연 셈이다. 과학과 종교의 영역을 연결해 주는 이 가교는 과학과 영성에 대한 인간의 이해 차원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관련 웹 사이트

<http://www.passig.com/pic/Religion&TheBrain.htm>



긍정적인 품성을 키우자

칭하이 무상사/ 2000. 7. 10. 일본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706

자신이 가진 공포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할수록 이런 공포심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수록 그것은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만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나 ‘사랑’과 ‘사랑의 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한다면, 스승의 힘이 자연스레 모든 것을 돌볼 것입니다. 우리가 점차 그것에 익숙해지면 어떤 장애도 없어지고 어떤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힘을 믿고 매일매일 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키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지나친 애완동물 예방접종

(원문 영어)



한 과학 연구보고에 따르면, 매년마다 애완동물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대체로 불필요할 뿐 아니라 돈 낭비이며, 또한 잠재적인 치명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애완동물의 주요 질병에 대한 백신은 3년, 혹은 그 이상 효과가 유지되므로 연례적인 접종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애완동물을 백신으로 인한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 당국에선 백신 제조업자들에게 백신의 효력 지속 기간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스콘신 대학 매디슨 수의학과 면역학자인 로널드 쉘츠(Ronald D. Schultz) 박사는, 애완동물의 주인은 어떤 백신이 애완동물에게 필요하며 얼마나 자주 접종시켜야 하는지 수의사와 함께 잘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세요.

- 1) “애완동물은 매년 접종시킬 필요가 없다.” 리 호퍼(Leigh Hopper)
2002. 6. 3. 휴스턴 크로니클(Houston Chronicle)
<http://www.chron.com/cs/CDA/story.htm?front/1387004>
- 2) “개와 고양이의 예방접종 너무 많고, 너무 빈번하다?” 둔(T. J. Dunn) 박사
2002. 8. 26. 인터넷 동물병원(Internet Animal Hospital)
<http://www.thepetcenter.com/exa/vac.html>
- 3) 수의사들이 연례적 단체접종에 대해 변화를 촉구, 역효과 예증
2001. 3. 13. 수의학교(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http://svmweb.vetmed.wisc.edu/VetWeb/DesktopModules/ViewAnnouncement.aspx?ItemID=39&mid=164>



스승님을 '모시|기|'

- 초창기 사제간의 이야기

스승님은 사람들을 돌보실 때 언제나 사려 깊고 진지해,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남기신다. 반면 제자들은 스승님을 모실 때 부주의하거나 경솔하기 일쑤여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승님이 일깨워 주셔야 한다.



강연대에서 지새운 밤

시후 산정에는 스승님이 초창기에 지내시던 통나무집이 있었다. 집 밖에는 높은 데크가 있었는데, 스승님은 모두가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설법하시곤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강연대'라고 불렀다. 어느 날 스승님은 시자에게 강연대에서 밤을 지내시겠다고 하셨다. 당시 그곳은 공사가 끝나지 않아 수도와 전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시자는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 즉시 모기장을 치고 접이식 침대를 가져다 놓았다. 스승님은 그렇게 해서 밖에서 밤을 보내시게 되었다.

다음날 새벽 깨어난 시자는 아직 몽롱한 눈으로 스승님이 벌써 모기장 속에서 명상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부끄러운 것도 잠깐, 더 가까이

들여다봤을 때 그녀는 지난밤 자신이 얼마나 부주의했는지를 깨달았다. 간밤에 흐릿한 불빛 아래서 너무 높이 매단 탓에 모기장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는데, 모기장 끝자락이 바닥에서 몇 뼘이나 올라간 것을 몰랐던 것이다. 밤이 되면 산은 모기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시자는 스승님께서 간밤에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생각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인(大人)과 소인(小人)

첫 번째 에피소드

1990년 코스타리카에서 크리스마스 국제 선철이 끝난 뒤, 스승님과 제자들은 근처의 외딴 해변에서 좀더 안거했다. 스승님은 내리쬐는 해변에다 버려진 부목을 세우고 방수 천을 씌워 그늘을 만들도록 하셨다. 우리는 주방 기구와 과일, 야채 등을 찌는 듯한 태양을 피해 그 차양막 아래에 두었다.

그때 해변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담수(淡水)가 솟아나는 샘이 나타나더니 그곳에서의 안거가 끝나고 스승님이 파나마로 떠나시자 갑자기 해수면이 높아져 그 작은 샘을 덮어 버린 것이었다. 그 뒤로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 맑은 물이 어디서 흘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샘에 흘러 들어온 물은 작은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굽이쳐 갔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샘에서 물을 길어 와 6, 7겹의 천으로 걸러낸 뒤 음식하는 데 쓰기 위해 저장해 두었다. 밤새 샘물의 티끌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물을 얻기에는 아침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안거하는 동안 스승님은 우리에게 근처 무너져 내리려 하는 모래 독을 튼튼히 쌓고 물이 빠져나가는 수로도 더 깊이 파게 하셨다. 그러나 바닥이 고르지 않아 물이 잘 흐르지 않자 스승님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새로운 물길을 파기로 하셨다. 당시 스승님은 맨발 차림으로 열심히 삽질을 하시며 우리에게도 열심히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재미있게만 느껴져 그 일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 날이 차츰 어두워질 무렵, 우리가 너무 느리게 일하는 것을 보신 스승님은 호되게 야단치시며 이 물길을 만드는 일이 우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고, 그제서야 우리는 서둘러 일을 완성하기 시작했다. 스승님의 시자가 대신 삽질을 하겠다고 청했지만, 스승님은 굳이 몸소 하시고자 했다. 제자들은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얼마 후 대부분의 제자들은 코스타리카 센터로 돌아가 잡초를 뽑고 나무를 심으며 주변 환경을 가꾸었고, 몇 사람만이 스승님과 함께 해안에 남아 있었다. 그때 고온으로 비가 내리자 모두들 차양막 아래에서 비를 피했다. 그러나 차양막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자 스승님은 우리에게 가사를 벗어 처마를 내듯 방수 천에 이어 달라고 하셨다. 다시 해가 난 후 옷을 말리려 하자 스승님은 마른 나무와 철사를 가지고 건조대를 만드셨다.

어느 날 밤 한 장주자가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승님과 그 사이에 일어

난 일을 하나 떠올리다가, ‘우리 큰 사람(大人)은 큰 일을 하고, 작은 스승님은 작은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하며 이 비유를 재미있게 여기곤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다시 바람이 몹시 불었다. 비가 그치자 스승님은 이 장주자를 불러 차양막에 덧댄 가사들을 커튼을 매듯 단단히 매어 두라고 하셨으나 그는 그냥 대충대충 하고 말았다. 스승님은 그것을 다시 단단히 매시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어조로 말씀하셨다. “당신은 큰 사람이니 큰 일을 하고, 나는 작은 사람이니 작은 일들을 하는군요.” 스승님의 그 말씀에 그 제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때때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는 늘 스스로를 깨우치곤 한다. 우리가 범부가 아닌 깨달은 스승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스승님은 우주의 존경받는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아주 평범하고 다정하며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스승님과 얼마간 함께 지내고 나면 처음에 가졌던 긴장감과 경외심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주의하게 된다. 사실 인간 관계에서 서로 오래 사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곤 하는데, 우리는 세속에 너무 오래 산 나머지 습관들이 너무 굳어져 있다. 그래서 세세 생생 축적된 나쁜 성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스승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늘 번거로움을 끼쳐야 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

스승님과 각국으로 흥법하러 다닐 때면 보통 2, 3일마다 거처를 바꿔야 하는데, 제자들마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게 된다. 한번은 수많은 사람이 사용한 세면대에서 스승님의 옷을 세탁해야 했는데, 깔끔하게 하기 위해 나는 큰 비닐 봉지를 수조 안에 대고 봉지에 물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세면대가 너무 작은 데다 미끄러운 비닐 봉지로 덮는 것도 여의치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봉지가 세면대 밖으로 넘쳐나서 빨래하기가 곤란했다.

그래서 나는 세면대를 여러 번 깨끗이 씻으면 바로 빨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행동에 옮기려 하는 순간 스승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말씀하셨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세면대는 너무 더러워요.”

나는 스승님의 옷을 수조에 직접 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인내심이 부족한 성품이 나를 이기고 만 것이었다. 이처럼 사소한 것까지도 스승님은 알고 계신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수준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나는 내가 태만해지기 전에 스승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외국 흥법을 다니는 동안 많은 현지 동수들이 스승님과 흥법단이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제공하곤 했다. 어느 날 밤 모두들 자러 간 뒤 나는 깔개와 침낭을 갖고 나와 거실의 전화기 옆에 누우며, 전화가 올리면 바로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막 누우려는 순간 스승님이 나오셨다. 내가 편의상 거실에서 잘 계획임을 아신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실은 공용 공간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자면 이 거실은 개인적인 공간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물을 마시러 오거나 다른 일로 나올 때도 머뭇거릴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공적인 장소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는 플러그선을 잠시 뽑아 두거나 방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거실에서 잔다는 게 나도 마음에 걸렸었기 때문에 스승님의 말씀은 내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다. 지금까지도 나는 이 규칙을 기억해 공용 공간에 사적인 소유물을 늘어놓지 않고 늘 청결히 유지하려고 한다.

또 한번은 통화 중에 전화번호를 읽어 주고 있을 때였는데, 나는 상대방이 미국인이니 좀 빨리 읽어도 당연히 알아들을 줄 알고 대충 읽어 줬다. 전화를 끊자 스승님은 즉시 지적해 주셨다. “그런 속도로 읽어 주면 누가 알아들겠어요?” 나는 혀를 깨물었다. 그때 딱 한 번 전화에 대고 우물거린 것이었는데 바로 지적을 받았던 것이다!

내 생활의 많은 사소한 것들을 스승님께 배우고 교정받은 후, 나는 나 자신의 거친 성품들이 점점 더 고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수많은 ‘큰 인물’,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을 만났으며, 그들이 사소한 것에도 크게 주의를 기울이

고 제2의 천성인 양 자연스레 그걸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압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깊이 집중하려 해도 주의력이 너무나 미흡해서 전신을 기울였다고 해도 대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부분들을 간과해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완벽하게 해 내지 못합니다. 내가 본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정말로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사람을 매우 기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물을 돌보며, 그들에게 주어진 일과 다른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돌봅니다.” (1992. 4. 10. 포모사 시후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240)

이러한 간단한 몇 가지 예를 통해서도 대인과 소인의 차이점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qyitv.com> (한국-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두알라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가나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케냐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케이프 타운	센터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더반	센터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Mr. Gilbert Kamgain	27-82-754-3840
★ 토고	센터	228-4-410-948
팔리메	센터	228-2-222-864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캄팔라		smchinghai@yahoo.com
★ 모리셔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포트 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s@intnet.mu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부에노스 아이레스		backhome25@hotmail.com
★ 볼리비아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산타 크루즈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Mr. Wei Cheng Wu	55-91-2234424
벨렘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 파울로	센터	55-11-5904-3083/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칠레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라 세레나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 코스타리카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멕시코 시티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igo.com.mx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eneter@adatel.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마나과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아송시온		ec_py2002@yahoo.com.ar
★ 페루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쿠스코		cusco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산 살바도르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Mr. Ray Alibocus	1-868-637-1054
아일랜드		alibocus@tsstt.net.tt
★ 캐나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몬톤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i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phathung20@yahoo.ca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오타와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97-0650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99@shaw.ca
	Ms. Sheila Coodin	1-604-439-6753
		g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미국

애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bj@cox-internet.com

캘리포니아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센터 1-415-753-2922
Mr. & Mrs. Khoa Dang Luong 1-415-333-9119
Mr. & Mrs. Dan Hoang sfcenter@hotmail.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eng.sun.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Mr. Jim Su 1-408-253-8516
SumaJim@aol.com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thanhgiang1990@yahoo.com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플로리다 :

*케이프 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Thaidbzad@msn.com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TLHill@comcast.net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enter@hotmail.com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lamtran@hotmail.com

Mr. Sang-Yoon Lee 1-773-275-6134
ilovesuma@yahoo.com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켄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메사추세츠 :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HughMDCenter@yahoo.com
센터 1-248-370-2924
smmcenter@yahoo.com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msn.com

미주리 :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s@lps.org

네바다 : *라스베가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anawarskas@hotmail.com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success@coachdebra.com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wisdmeye@aol.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오리건 :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center@hotmail.com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텍사스 :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uw@yahoo.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attbi.com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CHINGHAI_TX@sbcglobal.net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DNgyuen376@aol.com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도쿄	Ms. Yukiko Sugihara	tateyama_lg@yahoo.co.jp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샌 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lethong@hotmail.com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 한국	출판사	031-772-9250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ly@hotmail.com		chinghai@unitel.co.kr	054-532-5821
*버지니아 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영동	영동 센터	houmril@kornet.net 02-577-2158
워싱턴 :			서울	서울 센터	quanyim@unitel.co.kr 02-795-3927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유태인	02-599-1701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송호준	051-957-4552
★ 푸에르토리코				황상원	051-805-7283
카뮈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아시아			인천	신현창	063-254-5824
★ 포모사			대구	인천 센터	032-579-5351
타이베이	센터	886-2-2375-7527 smchtpe@ms33.hinet.net		이재문	032-244-1250
	Mr. & Mrs. Loh, Shih-Hung	886-2-2375-6784 shloh@ndmctsg.hinet.net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대전	김익현	053-633-3346
	Mr. Chu, Chen Pei	886-37-724726		한선희	053-767-5338
까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광주	차재현	053-856-3849
★ 홍콩	센터	852-27495534		대전 센터	042-625-4801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김수동	042-254-7309
★ 인도			안동	광주 센터	062-525-7607
봄베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rediffmail.com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제주	안동 센터	054-821-3043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881 ya@bezeqint.net	★ 마카오	김삼태	054-821-3043
★ 인도네시아				제주 센터	064-99-6113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 말레이시아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Mr. Agus Wibawa	62-81-855-8001	알로르 세타르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net.net.id	조호르 바루	Mr. Chiao-Shui Yu	60-4-7877453
	Mr. Tai Eng Chew	62-21-6319061	팔라렘푸르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Ms. Lie Ik Chin	62-21-6510218 finance1@ueii.com		센터	603-9287-3904 klsmch@tm.net.my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페낭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 몽골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Mr. Harry	62-31-594-5868 harry_l@sby.dnet.net.id	울란바토르	Mrs. Nergui Buzmaa	976-11-364352 zbadnaa@yahoo.com
마젤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 네팔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육아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t.adianingtyas@eudoram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 일본			포카라	센터	977-61-28455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truelove@nth.biglobe.ne.jp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neupanebishnu@hotmail.com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Mr. Shiva Bastola	977-61-28255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 필리핀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마닐라 센터	632-842-8828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49-174-5265242	ngoc-thao.nguyen@gmx.de
		chinghai@singnet.com.sg			dusseldorf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 스리랑카					HamburgCenter@gmx.de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lawrance@thefinance.lk			love_source@t-online.de
★ 태국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방콕	센터	662-674-2690			ChingHai@aol.com
		bkk_c@hotmail.com	★ 그리스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66-2-5914571			Razahidah@hotmail.com
		edasnlad@samsorn.stou.ac.th	★ 네덜란드		
	Mr. Wu Peir Yuan	66-1-8248294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384128			vo-khong@wanadoo.nl
하야이	센터	66-74-368329-30(c/o 155)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콘캔	센터	66-43-378112			m.mannaart@planet.nl
송크라	센터	66-74-447224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 유럽 ***				Mr. Lux Tamas	36-309-611994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지울	Ms. Dora Seres	36-1379-1924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Lehel Csaba	36-96-456-452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 아일랜드		clehel@freemail.hu
		sound@gmx.at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 벨기에					bernardleech2003@yahoo.co.uk
브뤼셀		oceandropjes@yahoo.com	★ 노르웨이		
★ 불가리아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norwayqy@online.no
		oldruslan@yahoo.com	★ 폴란드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zak	48-91-4874953
플로르디프		chinghaiplovdiv@mail.bg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 체코				quanyin_pl@yahoo.com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로드츠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prague-center@chinghai.cz	★ 포르투갈		czakra@interia.pl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리스본	Mr. Joao Daniel Rosa simoes	351-21-082-5306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lisbon_center@yahoo.com	
		zinghai@chinghai.cz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alcoa_center@hotmail.com	
		my@webspeak.dk	★ 러시아		
★ 핀란드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boulgakov@tri-el.ru
		hoanghanh@jippii.fi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Ms. Anne Nystrom	358-9-793902			dbk@siol.net
		anne.nystrom@kolumbus.fi	★ 스페인		
★ 프랑스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파리	센터	33-1-4300-6282			Madridcenter@yahoo.es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Ms. Lidia Kong	34-91-5470366
		ilancelot@celestialfamily.net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Mr. Yu Xi-Qi	34-96-3347061
		tich.hung@infonie.fr	★ 스웨덴		valenciachinghai@yahoo.es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아르메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moonasilver@yahoo.com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arclai@infonie.fr			are.sweden@post.utfors.se
★ 독일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berlincenter@hotmail.com			



스톡홀름	Mr. Mats Gigard	john.wu@bolina.hsb.se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캐네라	Mr. & Mrs. Khanh Huu Hoang	rayandjulie@linknet.com.au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 스위스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Ms. Klein Ursula	41-22-3691550		Mr. phong Minh Tand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 영국				Mr. Alan Khor	61-3-9857-4238 ckhor@bigpond.net.au
입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센터	61-8-9242-1189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2728 l.wellers@ntlworld.com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Mr. Ly Van Tri	61-8-9244-7661
	Mrs. C. Y. Man	44-1895-254521 pnl@matters19.freemove.co.uk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oforquanyinsydney@yahoo.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시드니	Mr. Hong Bo	61-2-97887588 hongbo_huang@hotmail.com
★ 스코틀랜드			★ 뉴질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오클랜드	Mr. Anton Toia	649-419-4470 nzanton@yahoo.com
*** 오세아니아 ***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 호주				Mrs. Chang-Wu Wong	649-534-0986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de@hotmail.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7-849-4442 647-858-3355 hamnzcont@yahoo.co.nz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넬슨	Ms. Joy Daniels	647-544-5268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타우랑가		
바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09-738-9992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r11@korne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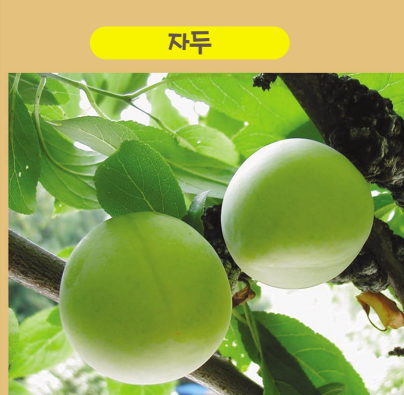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센터 이벤트



자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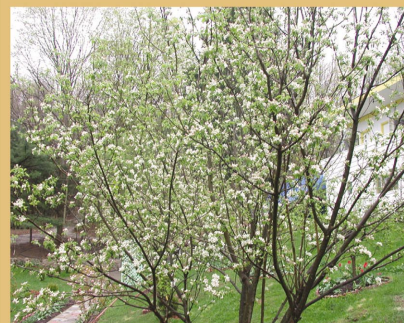
사과



복숭아 나무



사과 꽃



미국 뉴저지 센터

아름다운 여름과 가을 내내 흐르는 과일 향기

1990년 스승님이 뉴저지 센터 부지를 구입하셨을 당시, 이곳에는 죽은 나무 밖에 보이지 않았다.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동수들은 곧 센터 내에 다양한 과일 나무들을 심었다. 1992년에 스승님이 센터를 다시 방문하셨을 때는 복숭아나무 두 그루가 이미 말라죽은 상태였으나, 스승님이 복숭아나무 앞에 앉아 동수들을 만나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두 그루가 소생하여 잎을 틔우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매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이 지역의 사슴과 흑곰, 야생 칠면조와 새들, 그 밖의 야생 동물들은 센터의 평온한 분위기에 이끌려 종종 방문해서 맛있는 과일들을 맛보기도 한다. 복숭아, 자두, 배꽃이 떨어지고 더운 여름 동안 과일이 익어 갈 때면 달콤한 사과 꽃향기가 진동을 하고, 가을이 되면 사과를 맛보며 수확하는 계절이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 이 정토는 영적인 향기가 충만한 동시에 모든 방문객들에게 놀라움과 기대를 주는 풍요로운 모습을 선보이게 되는 것이다.

흑곰은 나무에 기어올라 과일을 따먹는다. 여기 이 곰은 복숭아나무 아래 서서 신선한 복숭아를 맛보기 위해 팔을 뻗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 + 21개 국어 자막>

493 입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자

1995. 8. 25-27. 독일 함부르크 유럽 국제 선삼 (1부)

“입문은 백만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진정한 스승을 만나 이 관음법문에 입문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법문의 소중함은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여러분에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DVD에서 스승님은 입문의 소중함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어떻게 신의 위대한 힘을 받아 매일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다. 모두의 가슴 깊이 전해지는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은 동수라면 결코 놓쳐선 안 될 법문이다! 또한 비입문자에게 있어도 스승님의 메시지는 마치 한밤의 경종처럼 그들을 세속의 미몽에서 깨어나도록 일깨우신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영어 + 중국어 통역>

CD-CE01 초세계의 치료법

1985. 8. 3. 포모사 초창기 법문

이 CD는 스승님이 포모사에서 대중 강연을 하시 기 전 초창기 말씀으로, 이번에 최초로 출판된 진귀하 기 그지없는 법문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왜 큰스승은 후계자를 뽑기 위해 계속해서 제자를 시험해 70번이나 집을 짓 다 허물게 했는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깨달 은 스승이 어떻게 중생의 60년 업장을 한 번의 꿈으 로 전환시키는지 설명한 ‘인과의 전환’에 대한 또 다 른 이야기. 죽은 후 천국에 간 사람들의 의식은 왜 돌 이나 나무처럼 둔한가?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깨어나 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초세계의 치료법이 필요한가? 고 등의 행성에 사는 존재들은 어떻게 사물을 창조하는 가?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상처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 료하는가?

<중국어>

CD-CG01 스승의 힘이 모든 것을 돌본다

2001. 6. 4.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이 CD는 풍부하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스승님 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세상의 무상함을 대면했을 때 수행자 들은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키워 곤경에서 벗어날 것인가? 일단 애완동물을 친구로 삼기로 선택했을 때, 어떤 지식과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하는가? 인생에서 중 요한 선택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밤에 끝없이 꿈을 꾀도 스승님은 우리를 높은 세계로 데려가 공부시키는 가? 세속의 일을 처리하거나 기술을 배울 때 어떤 태 도를 취해야 하는가? 명상에만 의존해도 충분한가? 이 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에 관한 스승님 의 예리하고 명쾌한 말씀도 반드시 들어 보시길 바라 다.